



跆拳道 宗主

1978年度를 裝飾하게 될 「프레 월드게임」 跆拳道大會를 盛況裡에 마치고있음을 全世界跆拳道 家族과 더불어 기뻐하는 바이다.

특히 이번 大會에는 國際競技聯盟의 執行委員이며 國際卓球聯盟의 會長인 「로이·에반스」氏를 비롯해서 國內외의 많은 스포츠 指導者들이 자리를 빛내주었음은 참으로 뜻 깊은 일이었다.

그리고 20餘個國의 外國使節과 많은 著名人士와 입추의 餘地가 없을 정도의 跆拳道 「팬」이 競技場을 메워 감격스러웠다.

더우기나 이번 大會에서 跆拳道 宗主國답게 韓國選手들이 8體級 全體에서 霸權을 차지하였음은 아직도 宗主國으로서의 面目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跆拳道는 이제 世界化된 스포츠로서의 條件을 忠實히 갖추어야 할 段階에 이르렀다. 하루속히 理論의 統一을 이루고 「룰」이나 護具의 代當한 改善을 서둘러야 하겠다.

跆拳道의 根源인 武道精神을 시급히 確立하고 內實을 다져 나가는 過程이 앞당겨져야만 하겠다. 이런 意味에서 이번 大會가 안겨준 敎訓이나 問題點은 참으로 크기도 많았다.

우리는 來年 西獨에서 開催되는 第4回 世界跆拳道選手權大會에 對備해서 臨戰態勢을 갖추어야 하며 國際軍人體育大會(CISM)에 採擇되어 1980年 4월에 열릴 第1回 國際軍人跆拳道大會에도 對備해야 하겠다.

國은 할일이 많다

世界跆拳道聯盟 總裁 金 雲 龍
大韓跆拳道協會 會長

世界の跆拳道人口는 増加一路의 趨勢이다. 跆拳道가 世界的으로 즐기차게 變어나가고 있을동안 外國選手들은 韓國跆拳道技術을 철저히 研究 熟達하여 갔으나 韓國跆拳道人들은 果然 무엇을 이루어 놓았는지? 宗主國이라는 自慢에만 陶醉하여 落後의 길을 걷기 시작한 것은 아닌지 反省해야 할 때가 온것이다.

世界の跆拳道를 이끌어 나갈 跆拳道人으로서의 資質을 끊임없이 啓發하여 나가기 위해서는 공부하는 跆拳道人이 되어야 한다. 技術과 力量을 아낌없이 發揮할수 있는 修練이 體質化되어야 한다.

跆拳道의 多様な 技術과 知識의 開發은 물론이요, 相互交流를 통한 民間外交의 担當하는 跆拳道人으로 自負해야 된다. 이렇듯 遠大하게 跆拳道의 將來를 展望할때 너무나도 할 일이 많음을 새삼 깨닫게 된다.

이제는 宗主國으로서의 權威만을 내 세울 段階는 지나갔다. 항상 研究하는 姿勢와 武道 哲學을 가지고 科學인 跆拳道를 開發해 나가는데 우리 모두가 앞장을 서야 하겠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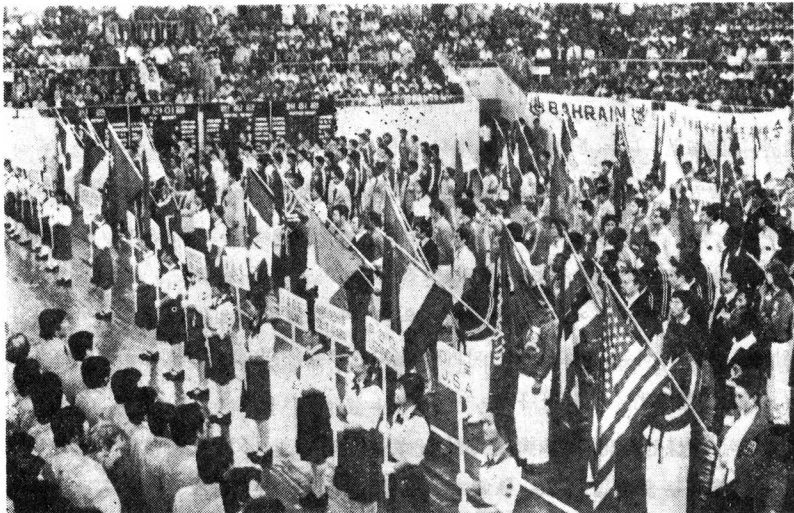
이것은 跆拳道 宗主國의 名譽와 脈을 지켜 나가는 基本姿勢이자, 跆拳道를 世界化하는데 있어서도 不可缺한 要素이다.

跆拳道人은 國技 跆拳道의 世界化를 위해서 잠시의 게으름이나 조그만한 不協和 癖도 있어서는 안된다는것을 自覺하고 ickick한 前進을 계속 해나가야 하겠다.

프레 월드게임 跆拳道大會 盛了

「韓國，八體級 席卷 綜合優勝」

PRE-WORLD GAMES TAEKWONDO CHAMPIONSHIP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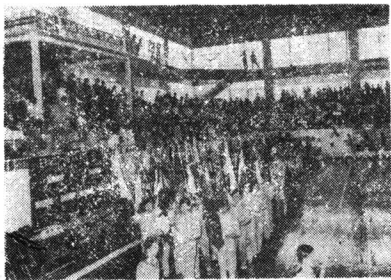


1978年 6月 30日 大望의 「프레 월드게임」跆拳道大會가 장마비가 내림에도 불구하고, 새로 단장된跆拳道의 聖域 國技院 正門앞엔 數 많은 人波와 車輛이 물려드는 가운데 19國에 24팀의 276名의 選手團이 參加하여 絢爛한 희망과 기대속에 開幕됐다.

이날 開會式에는 銀光女子高等學校의 브라스 밴드의 광파프로 開式通告에 이어 대회표지판과 대회기를 先頭로한 기수단에 이어 參加國名の 알파벳順으로 바레인, 캐나다, 자유중국, 프랑스, 서독, 홍콩, 인도네시아, 아이보리·코스트, 일본, 레소토, 멕시코, 네델란드, 필리핀, 사우디아라비아, 싱가포르, 타히티, 우간다, 미국, 그리고 주최국인 한국이 마지막으로 입장했다. 입장식 내내 貴賓席에 자리잡은 金雲龍大會長, 朴讚

鉉文敎部長官, 具滋春서울特別市長, 金澤壽大韓體育會長.駐韓首席大使인 필립핀의 티라노大使를 비롯한 三千餘觀衆의 우리같은 박수가 계속됐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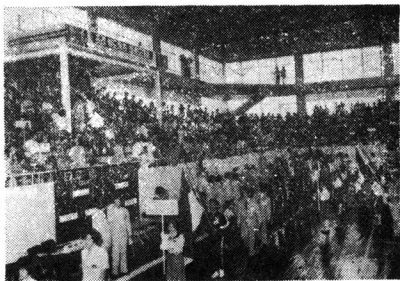
李鍾佑組織委員長의 開會宣言에 이어 金雲龍大會長은 開會辭에서 『이 프레 월드게임 跆拳道大會는 1982年 캐나다 토론토에서 開催될 豫定인 올림픽경기에 버금가는 第1回 월드게임을 겨냥한 重要한 大會입니다. 本人은 이 자리를 빌어 우리 跆拳道가 오늘날 國技로서 더 나아가 世界的 스포츠로 昇華할수있던것은 朴正熙大統領 閣下의 領導力과 閣下의 跆拳道에 대한 至대한 配慮에 힘은바 크다는것을 想起시키는바 입니다. 비록 跆拳道는 2000年前 韓國에서 始作되었지만 이제 跆拳道를 世界의 으뜸가는 스포츠로 키우는 일은 우리 모든 跆拳道人에게 부과된 공동 責任



이자 義務』라고 말했다. 名譽大會長인 朴讚紘 文敎部長官은 致辭에서 『運動은 어느것을 막론하고 모두가 굳건한 體力를 단련하고 健全한 精神을 涵養하는데 그 根本趣旨가 있다고 하겠읍니다만 特히 跆拳道는 우리의 몸과 마음을 함께 鍊磨하는 스포츠라고 할수 있습니다. 우리의 젊은이들은 이 跆拳道를 통하여 강인한 鬪志와 進取的인 氣像, 그리고 謙虛하고 圓滿한 人間性을 길러왔읍니다. 人類의 不幸과 悲劇을 막기 위하여서는 이땅위의 모든 사람들이 서로 忍耐와 奉仕와 協同精神을 發揮해야하며 이러한 精神은 바로 跆拳道를 위시한 武道와 스포츠에 의하여 涵養될수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本人은 跆拳道가 世界人의 武道로서 더욱 널리 普及되고 앞으로는 올림픽種目으로까지 發展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서 非 올림픽種目會議議長이며 國際卓球聯盟 會長인 로이·에반스씨는 祝辭에서 『跆拳道가 짧은 기간동안에 公式의인 世界의 스포츠로 발돋움하게된것은 世界跆拳道聯盟의 金雲龍總裁의 지도력과 역량에 힘입은바 크다』고 전제하고 『말로만 들어왔던 跆拳道를 韓國에와서 直接보니 매우 훌륭한 스포츠로서 앞으로도 더욱 發展할수있는 소지가 많다고 생각한다』고 찬사를 보냈었다. 이어 具滋春 서울特別市長은 參加國 選手團의 訪韓을 환영하는 뜻에서 꽃다발을 慶福女子商業高等學校 걸스카우트에 의해 各參加國 團長에게 일제히 걸어 주는 따뜻한 溫情을 베풀어 더욱 경기장의 분위기를 훈훈하게 만들어 주었다. 韓國代表選手團의 金

哲煥選手가 參加選手를 代表하여 選手一同은 大會規定을 遵守하고 跆拳道 精神을 發揮하여 정정당당히 싸워 선전분투하므로써 유종의 미를 거둘것을 金雲龍大會長에게 宣誓하였다. 開會式이 끝나자 본대회를 自祝하는 演武示範이 있었는데 成人部와 南大門國民學校 어린이 示範團으로 혼성, 새로 재정 공인된 말쑥한 도복차림으로 일상불란한 품세 및 겨루기 그리고 各種 격파시범을 통하여 跆拳道의 威力를 유감없이 발휘하므로써 내외귀빈을 비롯한 3천여 觀衆들의 환희와 경하의 박수갈채를 받았다.

式典行事를 마치고 경기가 開始되었으며 女子跆拳道選手權大會의 전초전이될 女子部 오픈경기를 본계일의 막간에 넣어 운영하므로써 가일층 觀衆의 흥미를 자아내었다. 이번 프레일드게임 태권도대회는 세계 태권도연맹이 국제경기연맹(GAISF) 집행위원회의 결의에따라 1982년 카나다의 토론토에서 개최될 제 1회 월드컵(비올림픽종목세계대회)에 대비한 대회로 개최됐다. 세계태권도연맹이 선정초정한 19개국에서 276명의 선수단과 35명의 국제태권도심판원, 외국 음서비 약 300명이 참가한 태권도 세계의 제전으로 각국간의 유대강화와 태권도 증주국으로서의 사명과 지도적 위치를 확고히 하고 국위선양에 이바지 하였다. 특히 세계태권도연맹 총재이며 대한태권도협회장인 김운용씨의 초청으로 세계 스포츠 지도자들이 대거 내한하여 태권도를 비롯한 한국체육의 관심도를 가일층 부각시킴으로써 체육한국의 지위향상을 꾀하였다고 보겠다. <姜>



국가별 메달 획득 상황

참 가	금	은	동	등위
대한민국	8			1
중화민국		3	3	2
서독		2	1	3
멕시코		1	4	4
아이보리·코스트		1		
네덜란드		1		
미국			3	
필리핀			2	
바레인			1	
프랑스			1	
우간다			1	

여자부 메달 획득 상황

한국	5	1	2
중화민국	2	3	2
미국	1	4	3
멕시코			7

※특별상(단체)

감투상: 바레인, 프랑스, 일본, 멕시코, 필리핀
 장려상: 캐나다, 홍콩, 인도네시아, 사우디·아라비아, 싱가포르, 우간다

특별상(개인)

최우수선수상: 김철환(한국)
 우수선수상: Richard P. Schulz(독일)
 미기선수상: John Holloway(미국)

개 인 전 적

핀 금

1. 한유근(한국)
2. Wu Han-Chueh(중화민국)
3. Michael Vasequez(미국)



3. Jaime-de Pablos(멕시코)

푸라이급

1. 하석광(한국)
2. Pable Arizmendi(멕시코)
Paul L. Cabatingan(필리핀)
3. Sheu Jiam-shi(중화민국)

반탐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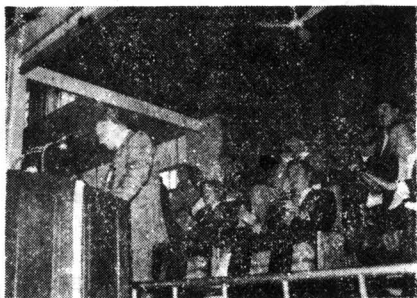
1. 김중기(한국)
2. Karim Akande(아이보리·코스트)
3. Reyarldo Salazar(멕시코)
3. Jaime C. Martin(필리핀)

페터급

1. 박수복(한국)
2. Tu Wen-chung(중화민국)
3. Greg Fears(미국)
3. Hector Olivares(멕시코)

라이트급

1. 김세혁(한국)
2. Peter Salm(네덜란드)
3. Hwang Ming Der(중화민국)
3. Rashid Hassan(바레인)



웰터급

1. 유영합(한국)
2. Liang Bing Huei(중화민국)
3. Y. Ssekabira(우간다)
3. Rainer Miller(서독)

마들급

1. 김철환(한국)
2. Richard Schulz(서독)
3. John Holloway(미국)
3. Vicente Franco(멕시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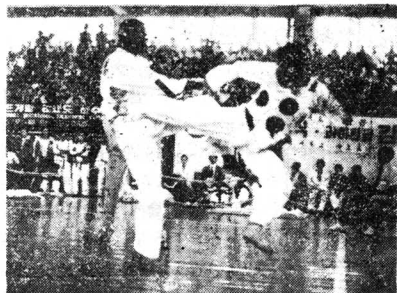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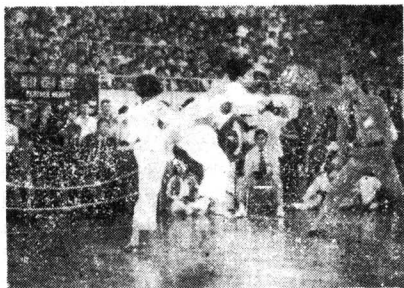
헤비급

1. 마상현(한국)
2. Dirk Jung(서독)
3. Jourdan(프랑스)
3. Lin Pao-lo(중화민국)

여자개인전적

- 핀 급 1. 임신자(한국)
- 푸라이급 2. Ku Hui Clin(중화민국)
- 반 탐 급 1. 김경주(한국)
- 페 터 급 1. 양현자(한국)
- 라이터급 1. Tseng Mee Slene(중화민국)
- 웰 터 급 1. 남궁숙(한국)
- 미 들 급 1. Marcial Hall(미국)
- 헤 비 급 1. 안선기(한국)

“경기 장면의 이모 저모”





프레월드게임 태권도 대회를 끝내고

大會 組織委員長

李 鍾 佑

프레월드게임開催의 意義

태권도가 國際競技聯盟에 加入된지 벌써 滿 3 年이 되었다. 國際競技聯盟(GAISF)은 世界的으로 公認을 받은 約 60개 種目的 競技團體로 構成되어있는 國際스포츠機構이다. 다시말해 이機構에 加入됨으로써 처음으로 世界的으로 通用되는 스포츠로 認定을 받는 것이다. 더 敷衍하여 설명하자면 國際올림픽委員會(IOC)가 國家올림픽委員會(NOC)라는 國家單位로 構成되어있는데 反해 GAISF는 그文字가 나타내주듯이 競技團體가 構成員이 되어있다.

GAISF는 非올림픽種目的 一部를(例, 卓球, 정구, 소프트볼, 보울링, 陸上의 一部種目, 태권도등)망라하여 世界大會를 오는 1982年 6月 캐나다의 토론토에서 開催한다. 이것이 곧 「월드게임원」으로 올림픽에 버금가는 世界大會가 되는 잔치가 될것이다. 이大會에 對備한 프레월드게임을 各種目別로 開催하기로 되어있는바 그 첫테이프를 끊은것이 바로 이번에 우리나라에서 열린 프레월드게임招請태권도 選手權大會이다.

世界大會級 잔치

모든種目的 프레게임이란 普通 6個國정도의 參加로써 이루어지는것이 常例이나 태권도는 그 나름의 特殊性을 감안하여 19個國을 招請한바 全部가 參加하는 大規模의 國際大會가 되었음은 慶賀해야 할 일이다. 이번大會에 參加한 人員數는 任員 96名에 男女선수 166名, 읍저버 120名 등 382名の 大家族의 향연이었다.

또한 어느競技大會에도 찾아 볼수없는 世界體育指導者들이 大舉 參席하였다는 것은 올림픽을 차지해놓고 이번 프레월드게임뿐이었다고 자랑하고 싶다.

國際卓球聯盟會長을 위시하여 美國體育會長, 월드게임執行委員長, 世界空手道聯合사무총장등 14名の 貴賓이 오로지 태권도大會를參觀하기 위해 來韓했다는 事實은 金雲龍총장의 體育外交의手腕을 높이 評價해야 할 것이다.

國際審判配定

이번大會를 치루는데있어 큰 애로가 있었다면 무엇보다 運營資金의 不足으로 事前準備가 늦어져 大會20日前에야 本格的인 業務에 着手하였고 이로인해 進行上 미흡한點이 있었음을 부끄럽게 생각한다. 또한 外國貴賓들의 接待에 있어서도 個別的으로 乘用車를 제때에 配定치 못하여 多少의 不便을 끼친것도 未安하기 짝이 없다. 競技始作日부터 終了까지의 進行에 있어서도 若干 어색한面이 있었으리라고 본다. 이같은 原因의 一部는 韓國內의 國際심판起用に 못하지않은 차질을 가져왔기 때문이다.

당초 韓國에 配定된 국제심판數는 5명이었으나 指名된 外國심판들의 多數가 參加하지 못해서 국내국제심판들의 增員이 不可避해졌다.

따라서 한국적의 30名이나 되는 심판을 어떻게 起用配定하느냐가 큰 골치거리였다. 국제심판으로서 每年 會費納付의 義務를 다하며 國際大會에서의 任務를 遂行할수있는 좁은 門을 通過한 그들인지라 어떻게해서든지 均等한 機會를 주려고 애를 썼다. 또한 組織委에서는 국제심판으로

하여금 計體量, 計時, 記錄에 이르기까지 담당케 하였던바 多少의 無理가 있었으며 一糸不亂한 處理를 못하였던것도 否認할수 없는事實이다

判定은 公正했다

宗主國의 勝利는 당연하다. 그러나 勝利만이 宗主國을 自處할수 있는 能事는 아니다. 태권도가 지닌 哲學과 技術을 傳하는것이 宗主國의 義務라고 나는 본다. 제 1회 세계대회나 2회대회를 통해 한국이 우승을 造作했다는 非難을 들었지만 이러한 非難은 한국심판들이 始終一貫 심판을 맡은데서 오는 必然의인 非難이다. 그러나 世界연맹이 創設된以來 外國人구제심판의 育成과 한국적國際審判의 實質向上을 통해 世界大會審判制度의 革新을 가져왔다. 이번 프레일드게임도 이러한면에서 公正하였고 여기에 異議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어떤 先入感에 사로 잡힌 것임에 틀림없다.

이번大會에서는 自國選手가 出戰할때는 그나라審判을 起用되지 않는다는 原則을 固守하였다. 더욱이 決勝戰에서는 全部 한국선수가 出戰하였지만 主審, 副審 모두 外國심판을 起用했다는 뜻에서 判定은 正當했다고 할수있다.

한편 一部신문에도 報道되었지만 重量級경기에서 한국선수들이 苦戰했으나 이는 外國선수들의 實力이 向上되었다기 보다는 한국선수들의 自慢에서 오는 苦戰이었다고 할 것이다.

새로운 施賞方式

이번大會는 參加선수들을 조금도 서운치않게 하기위해 一次戰에서 敗한자를 再次敗者復活戰으로 救濟하기 위한 方式을 채택하였다.

各國 任員選手들에게 充分한 事前說明이 있었는데도 自己對戰차례를 잊고 경기장을 離脫하여 進行上の 차질을 가져오기도 했다. 또한 施賞方法에 있어서 從來의 閉會式에서만 施賞하던 方法을 止揚하고 體級別경기 終了때마다 施賞式을 가진것은 一貫性이 缺如된 感을 주었을지도

모른다.

그러나 올림픽에서의 施賞方式이라는 點에서 國內경기로서는 하나의 里程碑가 된것으로 自負한다. 다만 한쪽 코트에선 경기를 續行시키고 다른 한쪽에서 施賞을 하였다면 좀더 짜임새있는 施行이 되었다고 볼것이나 場所의 협소로 인해 如意치 않았다.

女子世界大會의 可能性

이번大會를 통해 特記할일은 오른경기로서의 女子部경기이다.

한국·中國·레소토·미국·4個國에서 參加한 女子선수들의 誠意와 技倆은 장차 女子世界選手權大會의 開催可能性을 짚게 해주었다. 레소토팀은 男子팀마저 實力이 뒤진터이라 女子部가 비록 最下位에 머물렀다고는 하나 男女모두가 全體級에 出戰한 熱意는 前途를 期約해 주는 일이다. 그들이야말로 來日의 頂上을 위해 不斷히 된것이며 반드시 그努力은 結實을 거둘것이라는 것을 이번大會를 통해 確信하였다.

태권도의 來日

태권도의 갈길은 險難하다. 나는 이번大會를 통해 各國 임원선수들의 진지하고도 進取性이 있는 생각과 行動을 보고 태권도의 來日은 밝다는 確信을 굳게 했다.

거듭 자랑하고 싶은말이 있다면 世界스포츠指導者들이 우리의 태권도發展을 위해 宗主國을 찾아주었고, 태권도의 眞價를 새로이 認定하고 돌아 갔다는 事實이며, 이를위해 獻身奉仕해온 김운용총재에게 태권도人的 한사람으로 심심한 감사를 드리는바이다.





프레월드게임 태권도 대회 총평

동양통신 기자 박 해 서

「프레월드게임」 중 첫주자로 거행된 태권도 국제초청선수권대회는 金雲龍총재가 이끄는 중주국 韓國 태권도를 다시한번 과시한 알찬 행사였다.

지난 6월 30일부터 7월2일까지 연일 國技院을 초단원을 이루게한 이번 「프레월드게임」은 美國 「멕시코」·「西獨」·「우간다」·「바레인」·「프랑스」 自由中國 등 5大洋 6大洲의 강호 19國 1백60명이 참가함으로써 사실상 세계선수권대회를 능가케했다.

韓國은 지난해 「시카고」의 제 3회 선수권대회보다 기술면에서 훨씬 향상됐다고 평가된 이번 대회에서 또다시 강적들의 도전을 물리치고 8계급을 모두 석권, 중주국의 위용을 재확인했다.

특히 「스포츠」외교에 탁월한 역량을 갖고 있는 金雲龍총재의 선견지명에 따라 「로이·에반스」 월드게임위원회의장겸 세계 탁구연맹 회장은 1년전에 이미 來韓토록 초청, 「프레월드게임」을 빛냈음은 물론 내년 平壤세계탁구선수권 대회출전문제를 둘러싸고 큰 관심을 갖고 있는 그가 「타이핑」맞게 韓國에 들러 우리의 입장을 크게 뒷받침하게 했으며 「테마르코」韓美 재단이사장겸 세계태권도 연맹부총재 美國체육협회 「J·헨슨」부회장 「돈 포토」월드게임 집행위원장등 거물급 국제 무대 인물들이 대거 내한, 「스포츠」외교에도 큰몫을 했다.

무엇보다 이번 대회의 수확은 그동안 심혈을 기울여 각국의 국제심판 양성에 힘쓴결과 대량 배출로 결승전은 모두 외국 심판들이 주재함으로써 공정성을 기했다는 점을 들수있겠다.

또 연일동원된 수천명의 관중동원은 세계화된

태권도에 대한 관심과 흥미를 나타낸 국민들의 척도를 알수 있었으며 단순한 무술로서뿐 아니라 하는 스포츠로서 보고 즐기는 「스포츠」로 자광을 받고 있다는 것을 한마디로 짐작케 했다.

그러나 몇가지 문제점이 있었다.

「네델란드」·「美國」·自由中國·「멕시코」 등의 급진친 중주국의 실력향상은 중주국의 영역을 크게 위협했으며 특히 중량급 선수들이 고진, 위험신호를 던져줌으로써 새로운 기술개발에 박차를 가하지 않고선 어려운 처지에 당면했음을 실감케했다.

또 참가국 모두가 중주국의 「테크닉」을 습득 발휘함으로써 평준화를 이룩, 권위만을 내세운것이 아니라 연구하는 자세와 무도 정신의 확고한 철학을 통해 과학적인 태권도 기술개발에 힘써 내실을 기해야 될때가 왔다고 느꼈다.

단약 조금이라도 게을리한다면 오는 9월의「홍콩」·「아시아」선수권은 물론 내년의 西獨 세계 선수권대회 그리고 나아가서 日本「가라테」가歐州에 「해게모니」를 넘겨주는 재판을 초래치 않는다고 장담할수 없기 때문이다.

이밖에 일부 해외사범들의 자세도 눈살찌프리게 했다.

모처럼 손수기른 벽안의 제자를 메리고와 다소 마을에 들지 않는 판정을 내렸다는 치머라도 불상사나운 「매너」를 보인 것은 본인은 물론 중주국의 차원높은 경기력이나 공부를 하려온 그들의 눈에 어떤 것이 비쳤나를 심각하게 반성, 무도정신에 입각한 정정당당한 행동의 아쉬움을 남기게했다.

한편 처음 시도한 여자부 경기는 비록 韓國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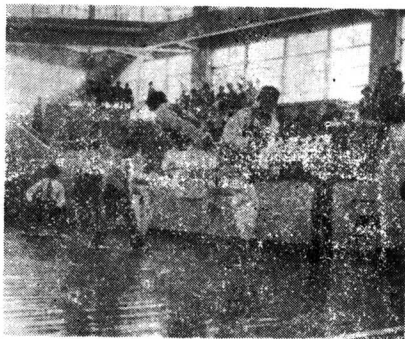
1978년도 전국 신인선수 선발대회

National New Face Taekwondo Championships

1978년도 전국태권도 신인선수 선발대회가 국기원에서 3월 23일부터 27일까지 5일간에 걸쳐 거행되었다.

이 대회에는 중기부에 875명, 고기부에 112명 총 987명이 참가하여 선수 참가에 있어 최고의 기록을 수립하였다.

에년과는 달리 많은 관람객이 운집한 가운데 거행된 개회식에서 김운용회장은 개회사를 통하여 『매년 열리는 신인 선수권 대회가 국기 태권도의 세계화와 각종 국제대회에 원동력이 되길 당부하며 태권도의 미래를 짊어질 젊은 선수들이 그동안 닦은 기량을 아낌없이 발휘하여 좋은 성과를 올리도록 기대한다』고 말하였다. 중기부 편급에서 이서용선수 대 윤남현 선수의 대전을 필두로 준결승전까지는 2분 2회전제임으로 경기가 진행됨으로써 많은 참가선수를 짧은 시간에 경기를 치룰 수 있었다. 5일간 속개된 열던 경기중 중기부 반탐급경기에서 대전체고의 임두희 선수는 2회전 30초만에 동산고등학교의 심재필선수를 오른발 내러찍기로 얼굴을 강타하여 KO승을 건우었다. 또한 중기부 페티급에서 성동상전의 오배균선수는 다양한 공격을 펼쳐나가 원발 앞돌려 차기로 4판의 유명익선수를 2회전 1분30초만에 좌측 관자노리를 강타 KO승을 건우었다. 라이트급 결승전에서 대전대성교묘의 서석원선수는 청주기계공고의 연규현선수를 맞아 원발돌려차기와 오른발앞차기를 주무기로 다각적인 공격을 펼쳐 판정승, 중기부 라이트급의 신인왕으로 탄생되었다. 서석원 선수는 예선전 통과에 있어서 남달리 KO승을 건우는 등 장래가 촉망되는 선수라고 관람석에서 까지 입을 모아 칭찬하였다. 또한 고기부 웰터급 결승전에서는 청주기계



공고의 이동준선수는 인천체전의 손선일선수를 맞아 원발 뒤후려차기와 오른발 뒷차기를 주무기로 다각적인 공격을 펼쳐 일방적으로 우세승을 건우었다. 특히 이동준 선수는 고등학교 재학생으로 성인들 틈에 끼어 고기부 웰터급의 신인왕으로 탄생되었다.

1978년도 태권도 신인선수를 탄생시킨 금번대회에서는 전년에 비해 비교적 향상된 기술들을 보여주었으며 특히 경기인구의 폭증은 태권도저변확대에 큰 힘을 입었음을 입증하여 주었으며 상위권에 지방선수들이 대거 부상하였음을 괄목할만한 것이라 하겠다. 그러나 서구인에 비해 신체적인 열세에 놓인 우리로서는 중량급 선수 배출이 무엇보다도 시급하다고 하겠으나 대부분의 선수가 경량급에 몰리는 현상이 두드러져 국제대회진출에 있어서 중량급의 신인선수배출에 아쉬움이 더해가고 있는 실정이다.

계급별 입상자 명단은 다음과 같다.

우 승 자 명 단

중 기 부				고 기 부			
급 별	등 위	성 명	소 속	급 별	등 위	성 명	소 속
핀	1위	崔 昶 和	경기도성일고교	핀	1위	朴 亨 哲	인천제전
	2위	許 相 峰	강제육관		2위	尹 基 燮	성동상교
푸라이	1위	全 亮 柱	유도대학	푸라이	1위	李 圭 仁	인천제전
	2위	尹 燦 漢	서라벌고		2위	崔 寬 成	신촌도장
반 탐	1위	金 淳 泰	충북체육관	반 탐	1위	鄭 明 善	인천제전
	2	黃 宗 哲	인천제전		2위	尹 龍 根	105권투경찰
페 터	1위	辛 根 在	전북체육고교	페 터	1위	鄭 相 彩	인천제전
	2위	崔 仁 植	인천광성고교		2위	韓 昌 洙	청주대학
라이트	1위	徐 錫 元	대전대성고교	라이트	1위	梁 彥 錫	유도대학
	2위	延 圭 鉉	청주기계공고		2위	沈 相 佑	유도대학
웰 터	1위	鄭 洪 均	전북체육고교	웰 터	1위	李 東 濬	청주기계공고
	2위	金 起 成	인천제전		2위	孫 善 逸	인천제전
미 들	1위	李 基 奉	인천체육고	미 들	1청	田 浩 鎔	전주도장
	2위	鄭 富 根	전북체육고교		2위	金 善 珙	인천제전
헤 비	1위	鄭 載 高	인천제전	헤 비	1위	鄭 七 萬	성남상전
	2위	趙 章 鉉	인천제전		2위	金 相 先	북아현도장

〈22Page에서 계속〉

美國·自由中國·「레소토」등 4개국 선수가 출전
전체급에 걸친 대결을 펼쳐 역시 韓國이 종합우
승했는데 이를 계기로 빠르면 80년께는 제 1 회
세계 여자 선수권대회를 창설할 수 있는 기초를
마련, 아울러 큰 성과로 부각됐다.

이제 태권도는 「나」 또는 「우리」의 것이 아니

라 韓國이 키운 세계의 「스포츠」로 깊은 뿌리를 내리고 있음을 다시한번 인식, 전례권도인은 옷깃을 여미고 더욱 겸허한 자세로 일차단결 小를 버리고 大를 위한 연구와 노력으로 大洲에 찬란한 금자탑을 세우도록 박차를 가해야 할때가 온 것이다.

제 5 회 全國大學 跆拳道 個人 選手權大會

韓國大學 跆拳道聯盟 事務理事 盧 熙 惠

제 5 회 전국 대학 태권도 개인선수권대회가 단국대학교를 비롯한 전국 15개 대학 300명이 참가한 가운데 6월 8일부터 9일까지 국기원에서 성대히 거행되었다.

金雲龍 대한태권도 협회장을 비롯한 내외 귀빈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개회식(6월 8일 오후 2시)에서 張忠植 大學聯盟會長은

『大學人으로서의 育持와 國技 跆拳道를 통한 心身修練으로 來日의 國家를 築어질 知性人답게 競技에 임해줄 것』을 당부하였으며 이어 金雲龍 會長은 축사를 통해

『跆拳道의 理論과 實際에 관한 연구와 실천을 통해 跆拳道가 명실상부한 국제 스포츠로 굳건한 기반을 마련할 수 있도록 대학 태권도인들이 앞장서 달라』고 부탁하였으며 참가 선수들을 대표하여 閔榮基는

『스포츠맨십에 입각하여 知性人답게 最善을 다할 것』을 선서하였다.

곧이어 속개된 경기에서 선수들은 시종 우열을 가릴수 없는 접전을 벌였으며 우승 후보가 게임중반에, 탈락하는 등의 이변을 낳기도 하였다.

이번 대회의 특징은 첫째 大學跆拳道選手の



質과 量이 다같이 向上되었다는 點이다.

量的인 面에서는 예년보다 100여명의 選手가 많이 參加하였고 質의인 面에서는 15회의 KO승을 들수 있다. 이같이 大學跆拳道選手가 많아지고 경기 기술이 발전되어 간다 함은 매우 반가운 일이다.

둘째 대회의 조직적인 운영이다.

2일간에 281게임을 치를 수 있었던 것은 張忠植 會長을 비롯한 연맹 임원들의 사전준비와 대회 당일 임원 심판 선수들이 상호협조하여 자기 집을 돌보듯이 선수권 대회를 이 끌었음이다.

셋째 많은 大學學生들이 跆拳道에 關心을 보이고 있다는 點이다. 特別히 이번 대회는 柔道學校 仁川體專을 비롯한 연맹 가입교 학생들이 관중석을 메우고 열띤 응원과 박수를 보내준 것으로 미루어 짐작할 수 있으며 大會에 參加하지 못한 10個 大學에서도 祝電을 보내와 大會를 빛나게

해주었다.

이러한 것들은 大學聯盟을 아끼는 사람들에게
힘을 주었고 來日의 跆拳道를 더욱 발전시킬 계
기가 될 것이다.

1978년 6월9일 오후 6시 全國大學 對抗 跆拳道 選手權大會에서 다시 만날 것을 약속하며 역
전 2일의 막을 내렸다.

대 회 전 적(제5회 개인 선수권대회)

등 위 체 급	1 위		2 위		3 위			
	소 속	성 명	소 속	성 명	소 속	성 명	소 속	성 명
중기, 원 루 타 이	유도학교	張賢穆	유도학교	姜鍾吉	인천제천	李鍾斗	인천제천	李在鎮
반 탐	"	全亮主	동아대	尹昌玉	"	金鳳煥	"	金容出
메 더	명지대	金亨柱	인천제	鄭春燮	한사대	朴致淳	한사대	李正和
라 이 트	인천제	李泰熙	연세대	車鍾福	동아대	盧東錫	유도학교	李東秀
엘 터	인천제	朴哲	동양공전	吳鍾九	"	金世赫	"	黃善斗
미 들	성대	朴在文	명지대	金容男	인천제	金亨燮	"	全萬童
테 비	인천제	金相天	"	車爽賢	유도학교	姜國善	"	起人李
		鄭載高	유도학교	金起台	"	姜元燮	"	龍永綠
고기, 원 루 타 이	인천제	崔永吉	동양공전	金垣昌	유도학교	徐仁奎	인천제	朴亨哲
반 탐	동아대	車靑勳	성대	黃龍洙	"	朴孝男	"	安永益
메 더	"	李哲周	명지대	張源模	성대	高炯學	"	鄭明善
라 이 트	"	朱相憲	유도학교	沈相佑	명지대	全萬杓	유도학교	鄭箕洙
엘 터	"	白聖祚	인천제	金基承	"	李濟根	성대	柳壽喆
미 들	인천제	李東禾	서울대	成樂俊	연세대	趙光民	유도학교	南基榮
테 비	명지대	李文起	성대	李文熙	서울대	崔敬錫	한사대	李圭天
	"	申鉉永	동아대	朴仁德	"	李龍喆	인천제	林貴澤

강 령 상	단국대	閔榮基	인천제	韓福東	유도학교	權純晚	한사대	裴泰澤
-------	-----	-----	-----	-----	------	-----	-----	-----



제 5 회 한국중고등학교 태권도연맹 회장기 쟁탈전을 마치고

한국중·고등학교 태권도연맹 전무이사 노 상 석

78년도 신임 조기상회장님을 추대하여 신집행부가 구성됨과 동시에 첫 대회로서 본연맹 창립 5년째되는 이번 연맹회장기 쟁탈전 대회는 전국에서 중등부 206명, 남자고등부 311명, 여자고등부 52명, 총 569명이 출전하여 작년도 전회보다 100여명의 선수가 많이 참가하였다.

학교별 참가 팀수는 중등부 22개교, 남자고등부 27개교, 여자고등부 6개교 총 55개교로 연맹 창립후 최대의 성황을 이루었으며, 특히 여자고등부를 신설, 국내공식대회로서는 처음 열려 각계의 많은 관심하에 마쳤고 앞으로 여자부의 대회를 장려하면 국내의 인기종목으로 발전할 수 있는 여지가 있다고 확실하는 바이다.

연맹에서는 년 2회의 여자부 대회를 개최하여 계속적인 발전을 시켜나갈 계획이며 참가선수들의 기량면에서는 다소 기술의 단조로운 면이 있으나 게임운영면과 순발력, 민첩성에 있어서는 대학 및 일반선수에게 뒤떨어지지 않는다고 생각한다. 이번 대회에 다소 아쉬운점은 심판 판정면에서 더욱 신중을 기하여 자라나는 어린학생들에게 교육적인 면에서 생각하여 보아야 하지 않겠는가 하는 것이며, 대회기간 동안 대한태권도 협회의 많은 협조와 국기원의 각종 시설에 대한 협조에 깊이 감사드린다. 연맹의 행정면에서 각종 대회에 관한 문제는 중고등학교 학생은 학교장을 단체의 장으로서 매년 단체등록을 본연맹에 하여야하고 대한태권도 협회선수등록을 필하여야 각종 학생대회에 참가할 수 있음을 알려드린다.

집행부 명단

직	위	성 명	직	업	비 고
회	장	조기상	장	훈고등학교교장	신임

부 회 장	조재후	영등포중학교교장	유임
부 회 장	이강목	은평여고교장	신임
전무이사	노상석	서울체육고교사	
총 무	황석근	장훈고교사	유임
경 기	최영열	남산공업전수교사	유임
재 무	김인수	동성고교사	신임
기 획	윤성열	동대문상고교사	신임
심 판	윤태곤	한한영중중교사	신임
심 의	조현길	한성중교사	유임
연 구	이현갑	대성고교사	신임
시 설	박창덕	영등포고교사	신임
이 사	박희원	은평여고교사	신임
감 사	김종광	중동중교사	신임
감 사	김부영	고려중교사	신임

단체입상학교

중등부

우 승: 한영중학교

준우승: 풍생중학교

3 위: 예산중학교

장려상: 청량중학교

남자고등부

우 승: 동대문상업고등학교

준우승: 성동상업전수학교

3 위: 협성상업고등학교

장려상: 송도상업고등학교

여자고등부

우 승: 청산여자상업전수학교A팀

준우승: 은평여자고등학교

3 위: 청산여자상업전수학교B팀

장려상: 인천체육고등학교

제 5 회 개인선수권대해점 제 4 회 연맹회장기 쟁탈 전국 국민학교 태권도대회

한국국민학교 태권도연맹 전무이사 주 상 일

제 5 회 개인 선수권 대회결 제 4 회 연맹 회장기 쟁탈 전국 국민학교 태권도 대회가 5월30일에 국기원에서 열렸다. 한국 국민학교 태권도연맹이 주최 주관하고 대한 태권도 협회가 후원한 이번 대회에는 청주 모충국민학교와 서울 구화국민학교를 비롯하여 개교에서 60명이 참가한 가운데 본 대회대 회장인 한국 국민학교 태권도 연맹 박문배 회장의 인사말에 이어 서울서관 국민학교 이 전재 선수의 대표 선서로 열전의 막이 올러졌다.

경기전 약 30분간 서울 영훈국민학교 시범단의 시범이 있었는데 성인 시범단의 동작을 방불케 하는 고도의 기술을 보여주어 경기장이 떠나갈 듯한 박수갈채를 받기도 했다. 경기가 시작되자 학부모들의 응원 소리가 높아졌고 오후에는 수업을 마치고 찾아온 자 학교 어린이들이 응원에 합세하여 경기 분위기는 더욱 고조화 되었다.

경기 임원들의 진행이 훌륭했고 경기에 입하는 선수들의 태도와 경기를 관전하는 사람들의 자세도 바람직했지만 한가지 유감스러운 것은 지나친 승부욕 관계로 심판의 판정에 부정확한 방법으로 항의를 제기하는 코우치가 있어 내일의 태권도를 짊어질 후예들의 정신계도에 막대한 저해를 끼쳤음은 물론 태권도의 정신적 가치를 높이 평가하고 어린이들을 도장에 보내온 학부모님들의 가슴에 찬물을 끼얹었다는 사실이다.

극소수의 심판과 극소수의 코우치가 잠시 지각을 잃고 범한 오류가 많은 태권도인들이 사명감을 가지고 희생적으로 향아올린 금자탑을 한 계단 쓰러뜨리고 만 셈이다.

아동들의 실력은 작년에 비해 별 진전이 없는

것 같다. 학교마다 6학년을 중심으로 구성되어 있던 선수들을 대부분 졸업시키고 선수단을 재구성한지 2~3개월밖에 경과하지 않았기 때문에 충분한 연습시간이 없었다는 것이 그 첫째 원인이요, 국민학교 어린이들의 경기 횟수가 너무 적다는 것이 둘째 원인인 것이다. 한가지 크게 염려되는 것은 지금까지 여러해의 경기를 치뤄오면서 공통적으로 느낀 것인데 대부분의 선수들이 협회경기 규정에도 미달되는 1분 2회전 경기에도 체력의 한계를 느낀다는 점이다.

국민학교때의 선수가 중학교를 거쳐 국가대표 선수에 선발된다고 할 때 어릴 때부터 기초체력 향상에 신경을 써야 함은 두말할 나위가 없는 것 같다. 따라서 앞으로 본 연맹의 여러가지 어려운 여건들 이해결되면 경기횟수도 늘리고 경기 시간도 협회 규정에 차츰 접근시킬 방침이다.

따라서 일선 지도자들은 평소에도 선수들의 기초체력 향상을 위해 가일층 노력해서 장래성 있는 선수를 배출해야 되겠으며 선수 자신들도 보다 계획적이고 적절한 방법으로 기초체력 향상을 위한 트레이닝을 계속하면서 희망찬 내일의 꿈을 키워주기 바란다.

단책및 개인별 입상자 명당은 다음과 같다.

◎ 단체전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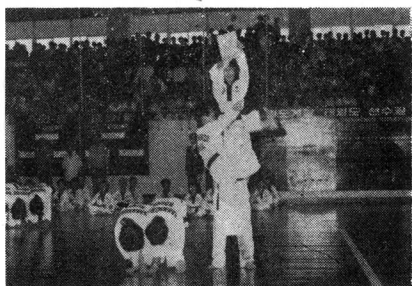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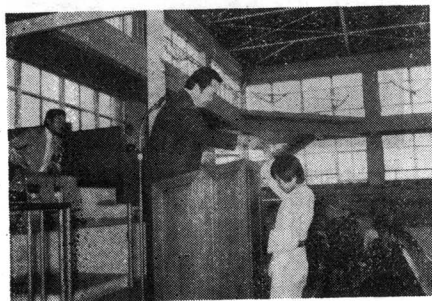
1위 서울광희국민학교	252점
2위 서울전농국민학교	245.2점
3위 서울남대문국민학교	228점
장려상 서울미동국민학교	207점
장려상 서울동명국민학교	163점

◎ 개인전적

핀 급 1위 홍재선(서울광희국교)

- 2위 김태현(충북안별국교)
 3위 임형성(서울전농국교)
 3위 김종육(서울금화국교)
푸타이급 1위 강철의(서울전농국교)
 2위 이종선(서울광희국교)
 3위 박상주(서울광우국교)
 3위 이윤호(서울이태원국교)
반 탐 급 1위 김용복(서울남대문국교)
 2위 윤태석(서울망우국교)
 3위 채병우(서울신길국교)
 3위 김재환(서울남대문국교)
페 터 급 1위 한상호(서울남대문국교)
 2위 황춘식(서울미동국교)
 3위 안효성(서울연희국교)
 3위 함윤석(서울광희국교)
라이트급 1위 김동혁(서울전농국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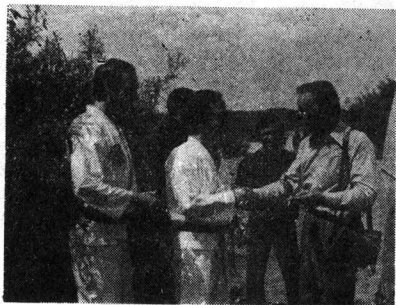
- 2위 서현욱(서울미동국교)
 3위 한석진(서울석관국교)
 3위 남윤기(서울남대문국교)
텔 터 급 1위 안경배(서울망우국교)
 2위 조영선(서울남대문국교)
 3위 이용선(서울전농국교)
 3위 천승진(서울후암국교)
미 들 급 1위 민병일(서울연희)
 2위 오창항(서울미동국교)
 3위 이희웅(서울광희국교)
 3위 허창현(서울여의도국교)
헤 비 급 1위 김현정(서울전농국교)
 2위 정재웅(서울신길국교)
 3위 이진재(서울판석국교)
 3위 김재형(서울광희국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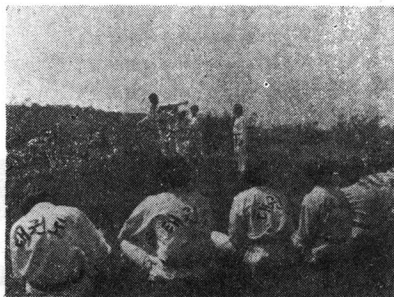
폴란드에서의 태권도 기술지도 및 시범대회

News of Taekwondo from Poland

오스트리아 태권도협회 부회장이며 유럽태권
도연맹기술위원장인 이경명사범은 공산국인 폴
란드 루부린(Lubrin)에 거주하고 있는 카나
르스키·저지(Kanarski Jerzy)씨를 통해 태권도
를 폴란드에 뿌리박은 이래 부단한 접촉을 시도
한 결과 지난 5월 25일~29일 제 3차 폴란드국
태권도 지도방문을 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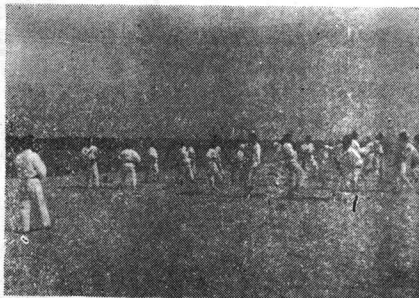


세계태권도연맹에 소식을 전해온 이경명사범
은 4일간의 여정으로 공산국 폴란드의 루부린주
카지미엘츠시에 들어가 루부린 대학강당에서 약
1,000여명이 운집한 가운데 2시간에 걸친 시범
대회와 태권도 영화 상영으로 태권도에 대한 인
식을 새롭게 하였으며 여기에는 T.V. 및 방송기
자들이 다수 참석하여 취재에 열을 올렸다고 한
다. 한편 루부린에서 45km 떨어진 카지미엘츠
(Kazimierz) 시 위스카(Wiska)江邊에서는 바르
샤마(Warschau)에서는 Polska Kronika Filmowa



TV방송국에서 원정을 나와 수련생들의 연습광
경과 시범장면을 중계하였으며 文化院회의실
에서는 10여명의 기자들과 인터뷰도 가졌다.

이로서 신문, 방송, T.V.를 통해 이번 짧은
여정이나마 폴란드인들에 대한 태권도 인식을
더한층 새롭게 하였다고 한다.



아프리카 태권도연맹 결성

제 1 회 아프리카대회 추진

국기태권도는 아프리카대륙연맹 결성을 계기로 더욱 그 세계화에 박차를 가하게 되었다.

5월10일 세계태권도연맹에 들어온 보고에 의하면 아이보리 코스트가 주동이되어 아프리카태권도연맹(African Taekwondo Union)을 결성하기 위한 모임이 금년 10월25일 아이보리 코스트의 수도 아비잔에서 열린다.

또한 이 모임에선 제 1 회 아프리카 대륙태권

도선수권대회(1st Inter-African Taekwondo Championship)를 개최하는 문제를 논의하게 된다.

아프리카태권도연맹엔 아이보리 코스트, 가나, 가봉, 모로코, 통가, 트리니다드, 토바고, 튀니지아, 우간다, 레소토, 케냐, 카메룬, 수단 남아연방등이 참가하게 된다.

아프리카태권도연맹은 아시아, 유럽, 미주, 중동에 이어 다섯번째 대륙연맹이 된다.

美 跆拳道 選手權大會에 카터大統領이 歡迎辭

"Taekwondoists get message from Carter"

第 4 회 미국체육회(A.A.U)태권도 선수권대회가 지난 4월8일~9일 兩日間 워싱턴의 하워드大學 체육관에서 全美 54個支部에서 1,200명의 選手들이 參加한 가운데 성대히 열려 27명의 男子 메달리스트와 여자 메달리스트 24명이 탄생되었다.

카터 美國大統領은 本大會에 보낸 환영사에서

『태권도란 스포츠 活動은 수많은 남녀와 어린이로 하여금 훈련과 활기찬 단련을 경험케 할 수 있다』고 말했다. 「경례, 준비, 시작」 등 한국어 명령으로 진행된 이대회에서의 입상자들이 지난 6월30일부터 7월2일에 열린 프레빌드게임태권도 대회에 출전했다.

美 올림픽委員會가 跆拳道 競技를 正式種目으로 採擇

Taekwondo enters USOC regular sports list.

미국 올림픽위원회(USOC)는 플로리다에서 4월27일 열린 연차총회에서 태권도를 미국올림픽위원회의 정식경기종목으로 채택하였다. 총회에

서는 미국체육회 부회장인 헨슨씨가 질의 답변에 나섰다. 미국올림픽위원회는 동시에 팬암 당국에 태권도를 정식 종목으로 채택할 것도 결의했다.



태권도부 설치에 대하여

승신여자중고등학교장 박 보 영

학교 호국단이 조직된 이후 여학생도 일단 유사시에는 붓 대신 여군으로써 국토 방위의 일역을 담당해야 하는 중대한 책임을 지니게 되었다. 이러한 국가가 요구하는 중책을 다 할 수 있으려면 먼저 고도의 정신 무장과 강인한 체력이 구비되어야 함은 두 말할 필요도 없다. 그럼 과연 국가 안보에 대한 정신 무장을 견고히 하고 강인한 체력을 양성함에 있어 여학생에게 적합한 국방 체육 종목이 무엇일까? 하고 나는 여러가지 체육 종목을 검토해 보았던 것이다. 그러다가 태권도야말로 상기 목적을 달성하는데 있어 가장 적합한 종목이라고 생각 하였다.

태권도는 그 발생한 곳이 조국인 대한민국이요 그 뿐 아니라 현재 세계 각국에 보급되어 국제적인 체육 종목으로 눈부신 발전을 하고 있으며 국위 선양에 공헌한 바도 지대한 운동이다. 우리 학교 학생들에게 태권도를 보급시킴으로써 첫째 민족 주체 의식을 양양, 둘째 불굴의 강인

한 체력과 정신을 양성, 세계 협동 단결의 정신 배양, 테레 유사시의 호신 방위 등을 도모 하려 했다.

호국단 특별 활동의 한 부로 태권도부를 설치 하였으나 지금 부원은 몇명 되지 않아 그 성과 별로 큰 바 없다. 작년 7월23일 거행된 주한 외국인 및 여자 개인 대회에서 소수의 선수가 출전 금메달(고 2 임애란) 은메달(고 3 이옥경) 동메달(고 3 안순덕)을 획득했다. 앞으로 태권도부를 더욱 확충, 교내 활동을 강화하는 동시에 사범을 초빙하여 지도를 담당하게 할 계획이며 금년도에는 태권도를 국방 체육 종목으로 선정 전교생에게 주 일시간 실시할 예정을 가지고 있다. 물론 태권도부 발전은 부원들의 열성적인 학습 태도에 따르겠지만 학교 선생님들의 전체 협조와 뒷 받침이 필요한 것이므로 학교 전체가 관심을 가지고 이에 임한 방침임을 밝히려 한다.



濟州道 跆拳道協會會館 開館

本會 傘下 全國市道支部로는 처음으로 濟州道 跆拳道協會會館이 1978年 5月22日 濟州市 龍潭洞 244-1番地에 地地 71坪에 建坪 94坪의 4層建物이 開館되었다. 本會館은 1975년부터 濟州道 出身 在日同胞 洪性仁氏를 主軸으로 한 101名의 在日同胞로 構成된 濟州道跆拳道協會 建設委員의 正성어린 4,000餘萬원의 성금으로 奉公하게 되었다. 이날 會館 開館 및 寄贈式에는 張日勳道知事를 비롯하여 道內各機關長과 體育界人士들이 多數 參席하여 盛況을 이루었다.

이자리에서 張日勳道知事は 致辭를 通해 『오랜 숙원인 태권도회관이 본도출신 재일동포의 힘으로 마련된 것을 도민과 함께 기쁘게 생각한다』고 말하고 『이를 계기로 태권도인구의 저변 확대에 전국 상위 입상을 위해 노력하자』고 당부하였으며 張義典 濟州道跆拳道協會長은 78年을 『濟州道 跆拳道의 해』로 정한만큼 재일동포들의 뜻에 어김없이 정진하겠다』고 다짐하였다. 式이 끝나자 濟州道任員들과 選手들은 같이 어울려 演武示範을 하면서 自祝하였다. 이날 濟州道跆

拳道協會 金흥기금으로 각계에서 1천萬원의 성금이 기탁되어 濟州道跆拳道協會 앞날에 밝은 展望을 보여 주었다.



(38P에서 계속)

눈에 보이는 위세에도 놀리겠지만 그보다는 내재된 신비성이다. 태권을 2,3년 수련했더니 자기도 모르게 자신감이 생기고 프라이드가 용솟음치는게 두렵울게 없어지더라고 미국인들은 실토하더라. 『현대문명의 병폐지요. 미국처럼 물질문명이 극대화한 나라에서는 흔히들 정신적 진공상태를 매꾸워줄 도구랄까 재료가 결핍돼 있다 않아요?』 그걸 그들은 태권도서 찾는다고

崔씨는 주장했다. 실리를 추구하는 그들이 외양의 힘만인 태권을 숭배하지 않는 이유는 이로써 자명해졌다. 『아시다시피 총기 소유가 자유로운 그들 아닙니까. 무력이 필요하다면 간단히 권총한자루 휴대하면 족할텐데 무엇때문에 백마일 떨어진 곳에서 달려 오겠습니까? 마리화나나 알콜중독 따윈 간단히 치유된다는데는 솟제 태권에 귀의하려드는 미국인들이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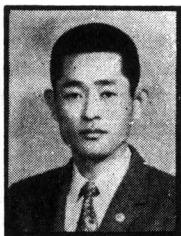
前 忠淸北道 跆拳道協會長 鄭甲淳會長 別世

忠淸北道跆拳道協會 前會長 鄭甲淳氏가 持病인 위궤양이 惡化되어 오랜 투병생활중 지난 7월 9일 새벽 6時 自宅에서 別世했다. 故 鄭甲淳會長의 葬禮는 忠淸北道 體育會葬으로 忠淸北道 體育館앞 廣場에서 영결식을 거행하고 淸州市 農村洞 先塋에 안장되었다.

故 鄭甲淳會長은 遺族으로 李順子 女史와 1男2女를 남기고 아갑게도 享年 40歲를 일기로 세상을 떠났다.

故 鄭甲淳會長은 1971년에 맨손으로 淸州에 跆拳道場을 建立, 忠淸北道跆拳道의 發展에 크게 貢獻 오늘날의 忠淸北道跆拳道가 있기까지 헌신적인 노력을 바쳐 跆拳道 저변확대는 물론 많은 國家代表選手들을 배출시켜왔다.

故 鄭甲淳會長은 1959年 忠淸北道內에 跆拳道道場이 없음을 감안하여 個人所有의 채소밭 100餘坪(淸州市 모충동 335번지) 등 家産을 處分, 各界의 協助속에서 現跆拳道場을 建立 굳센 정신, 굳센 체력, 굳센 국력을 館訓으로 내걸고 그동안 배출한 靑원수만도 3만餘名에 이르는



超大型 跆拳道場으로 군림하였다.

한편 故 鄭甲淳會長은 忠淸北道警察局的 무보수 사범으로 치안유지에 태권도를 도입시켰으며(1966년) 忠北大學, 淸州大學의 ROTC, 前 23陸軍病院, 第509保安部隊의 위촉사범을 동시에 해내는 초인적인 능력을 발휘, 태권도보급에 앞장서 왔다.

또한 그는 세계에서 최초로 11명의 '맹아들'에게 태권도를 지도하여 불우청소년에게도 관심을 두어 BBS

야간학교 학생들에게도 무료로 태권도를 전수, 청소년 선도에도 일익을 담당하였다. 매스게임에 태권도를 도입 일사불란한 단결력을 구현하기도 한 鄭회장은 매스게임의 효시를 만든바 있거니와 그간 대통령 표창, 내무부장관 표창, 충청북도 문화상 등 수 많은 포상 기록도 지녔다.

이렇듯 일생을 태권도를 위하여 살아온 故 鄭甲淳會長의 너무나 이른 別世는 跆拳道界의 큰 손실이 아닐 수 없다.

<35P에서 계속>

場을 열고 「물찬체비」같은 「2단 앞차기」의 묘기를 보이실 것이 보는듯 선풍입니다.

館長님! 아직도 훌린코 닭을 줄 모르는 1남 2녀의 꼬마와 울음에 지친 사모님 그리고 이 많은 당신의 사람들은 『은혜배준분들에게 대신 보답해 달라』는 遺言을 영원히 기억할 것이고, 그리하여 당신의 죽음이 태권도로 世界를 누리는 이

땅의 슬기로움이 되는 크나큰 씨알이 되는 것임을 저희는 명심할 것입니다.

저승에서는 제발이지 평안한 휴식, 언제나 건강하신 잠 이루시길 삼가 빌며 모두의 입울모아 부릅니다.

鄭甲淳 관장님! 館長님임....

意志의 불기둥 아직 뜨거운데

故 鄭甲淳님 영전에

趙 哲 鎬

會長님! 아니 모든이들의 情棼은 부름인 鄭장관님.

어찌 이 무더움을 가르며 숨을 몰아쉬며 그리하여 힘껏힘껏 달려 道場門을 열어 젖히게 하십니까. 그리하곤 왜 시치미 뚝 메고 잠만 들어계십니까. 언제 우리들이 會長님 부르심 받으면 게으름피운적 있습니까. 어찌하여 부르시고 안부른척 그 촌각 지루한척 눈을 감고 계십니까. 이처럼 많은 사람들을 불러들이고 그토록 편한잠에 빠진척 꿈에 한 번있었습니다.

會長님! 『道場에 오십시오』 늦잠을 깨운 電話 속의 이 간단한 한마디 뒤의 울먹이는 常駐師範의 전갈이 불현 어떤 悲報의 예시인 것을 직감케 했으나 會長님의 40생애를 終結시킨 「78년 7월9일 오전 6시 정각 운명하셨다」는 내용을 담고 있었음은 전혀 예기치 못했습니다.

그토록 저와 우리들은 會長님과 죽음, 「鄭甲淳」이라는 意志로운 韓武道人和 死神「타나토스」와의 交友가 은밀하게 이루어지고 있으리라곤 누 한사람 예견치 못했습니다.

會長님! 지금 이 글을 쓰는 이 시각에도 꼭 病床에 보내는 安否를 쓰듯 담담할뿐 會長님의 죽음은 도대체 實感치 못하겠습니다. 人生一死 都無事임을 모르실리 없고 界를 달리 하여 玉碎美名을 부러워하신적 없으며 『...내 할일은 내게 맡겨나다오/나는 안다. 人生이란 마련된 것 착한 것이라/...내게 이제 휴양이 필요한 것을』이란 「라이너·M·릴케」의 詩한줄 낭송한적 없는 당신이어서 아니 생전에 「국기 태권도의 理論과 實際에 보다 과학적인 意味가 부여돼야 한다」며 공부를 게을리 하지않던 당신이어서, 더더구나 1만2천명의 유단자를 손수길러냈고 무려 30개가 넘는 道場을 육성시키신라 忠南北은 물론 江原

道까지 치달으시던 당신이요,

침술과 지압술까지 잘 익혀 곧 자랑삼아 관원들을 치료하시던 당신이어서 우리는 특히 會長님과 죽음을 단 한번도 결부시킨적 없었음은 당연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會長님 잠자듯 누우신 지금 뇌성 머물어 소나기가 온 淸州를 뒤덮고 있습니다. 침통한 표정을 바꿀줄 모르는 L師範이 『관장님 돌아가신 꼭 10시간만에 이토록 심한비가 쏟아진다』며 하늘도 당신의 죽음을 슬퍼하는양 께마추고 있습니다. 각계에서 보내온 저술한 명복을 비는 뜻을 보고 있노라면 당신이 이제 우리와 태권도며 체육발전을 위한 기본요건 등 서로의 의견을 내세우며 고집을 부릴 수 있는 <산(生) 사람>이 아님은 분명한데 그 웃음 그 조용한 음성, 그 고운 눈매, 가려진 몸과 곱디고운 마음의 당신의 모습은 끝내 가버리고만는 것인지....

會長님! 지금 당신의 주검 곁을 지키는 이들에게 커다란 기쁨이 쥐어졌습니다.

당신이 생전에 남긴 그 억척스럽고 맘쑤린 보람, 그 씨앗이 영글어 忠北 최초의 忠北體育會葬으로 당신가시는 길을 밝히게 되었다는 소식입니다. 鄭宗澤회장님과 주변의 많은 분들께서 주신하신 이 기쁨으로 당신을 잃은 이 명청스러운 슬픔을 잠시 잊을수 있습니다.

썩 고맙고, 살아서 아픔을 자신의 살처럼 하신 門下의 젊은 이들이 당신께 드리는 마지막 뜨거운 선물임을 알아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지금 당신의 빈소에 바친 당신 생전의 道服을 가시는 길에 보내드리도록 뜻을 모았읍니다.

살아 바치신 道場에 대한 그 熱情 못잊으실것이어서 저승에 가신 당신이 그곳에서 또다시 道

會社設立案內

會社名: 株式會社 大家商事

住 所: 서울特別市 中區 乙支路 6街 18-185 德壽 BLD 103號室(電東 269-1946)

設立者: 姜元植, 高在天, 郭柄五, 金寅錫, 金順培, 金先九, 金一相, 盧秉直, 朴海滿, 裴永基, 嚴雲奎, 李鍾佑, 李南石, 李今烘, 李炳路, 李敦允, 李龍雨, 全正雄 '崔南道, 玄鍾明, 洪鍾秀, 洪正杓(以上 22人 가나다順)

設立趣旨: 弊社は 世界跆拳道聯盟制定 公認品을 製造 販賣하는 單一 製造元으로 道服護具 其他 各種 武道用具의 研究 開發 및 製品의 形・色・質 規格의 統一로 跆拳道 發展에 이바지 함은 勿論 事業支益의 一部를 獎學基金 세계 태권도연맹 및 대한 태권도 협회에 協贊 金으로 獻納하므로써 태권도 발전에 다소나마 이바지 하고져 설립하였음.

신행도복 제정공인 이유

한국을 중주국으로 한 태권도와 일본을 중주국으로한 “가라테”(空手道 Karate)는 정신 단·기술련에서는 물론, 경기규칙이 서로 다른 별개의 경기인데 의상의 역사적 기원으로 볼때 현일본의 “가라테” 도복은 우리나라 신라시대의 고유 의상임이 틀림없음에도 불구하고 태권도나 가라테가 경기 또는 수련시에 있어서 동일한 규격과 모양의 도복을 착용하고 있는 관계로 태권도를 모르는 사람은 태권도가 마치 “가라테”로부터 분파된 경기로 잘못 인식할 우려가 있어서 태권도 보급 발전에 크나큰 지장을 초래하고 있을뿐 아니라 태권도 체통과 권위가 손상되고 있어 태권도와 “가라테”를 간편히 식별하게 하기 위하여 태권도 고유한 도복을 제정하므로써 태권도 보급 발전에 기여하기 위함.

공인도복: 세계태권도연맹승인(검인) 공인 “마크”가 부착된 도복을 말함.

공인 도복의 적용범위

가. 세계연맹 주최주관 또는 감독하에 개최되는 각종대회, 강습회, 시범 및 승단심사 대회시.

나. 세계연맹 회원국이 주최주관 감독하에 개최되는 각종대회 강습회, 시범 승단대회 및 도장수련시.

판매보급일시: 1976. 7. 20일부터.

구 입 처: 전국시 소재 대리점.

해외수출판매: 泰西通商株式會社와 수출대행 계약체결. 중구 명동 1가 60 태양 BLD 705號

Tel 777-3315~7 대표이사 이윤진(李允珍).

「社 告」: 본공인 도복의 제품을 희망하시는 분은 본사로 직접 문의바람.

오늘의 총력안보 내일의 민족통일

韓國大學跆拳道聯盟 新執行部 結成

Pres. Chang, as head Inter-Collegiate Taekwondo

한국 대학태권도 연맹은 4월18일 總會를 開催하고 檀國大學校의 張忠植總長을 新任 會長으로 推戴하고 새 執行部를 構成하였다.

會 長 張忠植(단국대학교 총장)

副 會 長 金顯煜(단국대학교 교수)

金承根(전국 금은상연합회 회장)

尹乃鉉(한일정밀주식회사 사장)

專務理事 盧熙熙(서울대학교 교수)

總務理事 鄭燦謨(서울대학교 사범)

審判 " 高興煥(연세대학교 교수)

競技 " 金浩載(인천체육전문학교 사범)

國際 " 金容吉(경기대학 교수)

涉外 " 閔敦植(단국대학원 연구처장)

出版 " 鄭行道(명지대학교 교수)

弘報 " 金銀煥(서울산업대학 교수)

理 事 金桂洪, 朴成淳, 金榮敦, 南鍾旋,

姜忠植, 朴東基, 文鍾萬, 김수환,

姜孝鍾, 윤병열, 김석주, 정수웅,

김창규

監 事 吳文均, 金順培

"주식회사 대가" 전국 시 소재 대리점

대리점	대표자명	소	자	연 락 처
서울	박 호철	서울 강남구 역삼동 550-22		74-3853
"	김 종길	" " 잠원동 13-3번지 1동4만		57-5586
"	이 종확	" " 중구 을지로 6가 18-185		267-6206
성 남	강 선장	경기도 성남시 수진동 562번지 풍생중고등학교		2-4621
천 안	김 태종	충남 천안시 오룡동 189번지 대가체육사		4943
대 전	박 호원	충남 대전시 동구 삼선1동 276-4 삼무체육사		2-8526
이 리	허 용	전북 이리시 남중동 1가 181 전복체육사		2827
광 주	박 채규	전남 광주시 서석1동 27-5 대승체육사		2-5896
"	양 동운	" " 동구 금남로 5가 27 문화체육사		2-5545
진 해	김 동섭	경남 진해시 태백동 3번지 태권도중앙체육관		4-5549
마 산	강 성환	" " 마산시 회원동 359		4608
부 산	박 태순	부산시 남구 대연1동 298-4		5-3401
"	성 백규	" " 부산진구 전포4동 638-14 부인체육관		66-0566
제 주	강 국원	제주시 용담1동 400-2		86-8528
전 주	허 용			3-5697
군 산	허 용			2-2785

※ 미설치 지구(시)는 1個月後 개설 모집공고 예정임

태권도의 神秘

週刊스포츠 기자 홍 세 웅

요마들간에 인기있는 골목대장은 늘 그렇다. 우선 힘이 세야 한다. 그리고 마음이 좋아야 한다. 힘 세다고 약한 아이들을 마구 못살게 군다면 그건 인기있는 대장은 못된다. 비록 그 힘에 눌려 과거나 구술을 양보할지언정 마음은 그로부터 이미 떠난지 오래다. 독심이 센데다가 마음껏 또한 고와 늘 약자편에서서 빼앗긴 것들을 도로 빼앗아 주는 대장을 아이들은 마음에서 우러나 따르게 된다. 반한다는 뜻이다.

지난번 프레 월드게임 태권도 대회가 열렸을 때 國技院 주변서 받은 인상이 이와 흡사했다. 세계 20여개국 선수단을 이끄는 자세에서 안내하고 보살피는 종주국의 위치에서 우리 태권도가 보여준 매너는 참으로 장하고 미더운 것이었다.

벌써 첫눈에 기골이 장대한게 힘겨나 쓰게 생겼다 싶은 안내 청년들이 그렇게 겐틀할 수 있을까. 좀더 자세히 살피면 양손 마디마디 군살이 박혀, 알고 보면 무시무시한 파괴력을 연상시키는 그들이 무더운 날씨에 정장을 하고 깍뚝이 예를 갖추는걸 보곤 팬서리 혼쾌한 기분마저 들었다.

물론 힘이 우위다. 힘이 있고 불일이다. 그로 인해 타의 경의심을 유발하고, 따르게 하고, 이해하게 하며 궁극적으로 '우리편'을 만들 수 있겠다. 하지만 그역시 무시무시한 힘이어서는 곤란하겠다. 안하무인의 말용이란 인상을 주어서는 안되겠다. 무퇴화이란 인식을 준다면 필경 아무도 접근하지 않을 것이다. 그 앞에서는 굴종하는 것 같아도 진심으로 이해하고 지지를 독하는 어려울 것이다. 우리 태권도는 그렇지 않아서 더욱 좋은 것이다. 적어도 프레월드게임서 느낀 그들의 인상, 직접 만나본 외국 주재 한국지도자들을 모두가 한결같이 쾌활하고 예의 바랐다.

힘과 기를 지닌 저들의 고개 숙이는 정도에 따라 외국인들의 태권 숭상 정신은 정비례 하리라고 믿어 의심치 않는다.

『생각해 보세요, 미국인들이 왜 태권도에 그토록 반하는가』를 서울 프레 월드게임 미국팀 고치 崔俊杓(34) 6단이 반문해 오느라 잠시 난감했다. 『글쎄요...』 어쨌게 하든대로, 웃어들은 대로 열거할까 했지만 그건 마음편, 웬지 말하러는 것조차 짙은 안개속 등불처럼 희뿌연니 아른거리는게 통 머릿속이 정돈되지 않는다. 두번째 『글쎄요』가 나오지도 한참만에 드디어 포기했다. 모르겠다든 얼굴로 崔코치를 바라보았다. 조금은 부끄러운 내색을 하면서 그랬던 것 같다. 명색이 태권을 취재한다는 주제에, 가장 기본적으로 입문서 제1장 제1과같은 쉬워빠진 문제하나 답변 못하다니... 절로 한심한 생각이 들어 똑바로 崔 6단을 쳐다 보기가 민망했다. 그러나 崔씨는 의외로 당연하다는 표정이었다. 조금도 아니 여태 그런것도 모르십니까. 대판걸 그럭도 어떻게 태권 담당을 하신다 할 수 있겠습니까. 면박 주려는 뜻은 추호도 없었다. 그보다는 나라도 입장을 바꿔놓고 생각한다면 대답못할 겁니다는 겸손의 동작이 완연했다. 실제로 그는 자신의 양손을 가지런히 맞잡고 무릎 위에 가볍게 얹혀놓았으니까.

『미국생활 8년만에 저도 최근에야 터득한거지요. 그렇다고 제 얘기가 꼭 정답이라고 할 수는 없겠지요. 적어도 상당수 의견을 같이하는 전문가들이 있으니 말입니다만...』 미국인들이 태권에 심취하는 主因을 崔씨는 신비성이라고 갈파했다. 동양에서 무술이라는 것만으로 그들의 일차적 호기심을 발동시키기에 충분하다. 맨 손으로 벽돌과 기와장이 와삭 박살나고 몇타 놀이를 뽕뽕 나르는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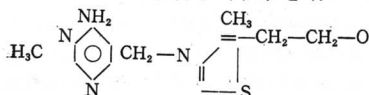
(P33에 계속)

身體 運動에 要求되는 藥物로서의 비타민 B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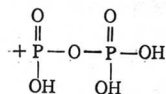
동덕여대 약학과 4학년 박 성 희

비타민은 體內에서 合成되지 않으므로 반드시 外部에서 食物이나 藥物의 형태로 공급되어야 한다. 그 中에서도 비타민 B₁은 正常的인 大謝機能의 維持를 위해서 必須 不可缺한 物質이다. 지금까지 우리는 新鮮한 야채나 과일종류로 비타민 C나 비타민 A 등이 體內에 공급되어 진다고 생각할 뿐 비타민 B Group에 관해서는 거의 무관심한 실정이었다. 이러한 사실은 身體를 많이 움직이는 사람들에게는 극히 위험을 초래할 수가 있다. 대부분의 질병이 간접적으로 비타민 B₁과 關連되어 있기 때문이며 만약 결핍 증세가 보이면 高價의 藥物 투여가 요구되고 또 간혹 副作用으로 코생할 경우도 있게 된다.

비타민 B₁은 水溶性으로서, Thiamin이라고 한다. 이것은 酵母(yeast), 糠科 植物, 돼지고기 肝, 筋肉, 계란등에 함유되어 있다. 藥學的으로 Thiamin의 作用 機轉은 다음과 같다.



Thiamine



Pyrophosphate

⇒Cocarboxylase + Mg + Carboxylase

<Coenzyme>

<enzyme>

⇒Pyruvic acid→acetate

즉 Carboxylase의 구성 성분으로 Pyruvic acid를 acetate로 하는 嫌氣性 脫炭酸反應에 필요하다. 따라서 炭水化物代謝에 필요하다. 이러

한 복잡한 代謝가 이루어짐으로써 身體는 Energy를 부여받고 움직일 수 있는 것이다.

치아민은 치료량 범위에서는 實질상 藥物작용을 나타내지 않으므로 대량 섭취하여도 필요 이상의 것은 배설되므로 해로운 것은 없다. 다만 급속한 정맥 注射로 血管 확장, 血壓低下를 가져오는 수가 있으나 一過性, 즉 잠시 나타나는 현상이며 곧 없어진다.

치아민의 결핍 증상은 아래와 같은 많은 위험한 병을 초래 한다.

1. 末梢神經炎의 증상……四肢重感(다리가 무겁다), 脫力感, 知覺過敏後 無感覺, 통증, 四肢, 감각 장애, 심하면 마비가 온다.
2. 中樞神經炎의 증상……신경질, 飢餓感, (나태해짐, 性格異狀, 초조감, 自發性 및 관심의 消失, 집중력 및 기억력의 감퇴가 올 수 있다.
3. 心血管 증상……이것은 결핍과정의 후기, 즉 酸化되었을 때 나타난다. 運動時 호흡 곤란, 心悸亢進(가슴이 두근거림), 頻脈(맥박이 빨라짐) 心窩部拍動의 증가(불규칙한 혈액의 순환에 의한), 心臟肥大, 浮腫, 活動能力感소가 있다.
4. 胃腸管 증상……食慾不振, 胃無力症, 변비등이 나타난다.

치아민 섭취 不足에 따르는 營養 결손으로 또 한가지 알코올성 신경염을 들 수 있겠다. 알코올 愛酒家の 경우 대부분 食욕이 감퇴되는데 이는 열량 공급, 즉 칼로리의 보급이 알코올 그 자체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때문이다. 알코올의 열량은 에너지와 같은 구실을 하여 별로 空腹感(空腹)을 느끼지 않지만 이는 위벽의 상피세포가 파괴되어 食욕감퇴와 胃장벽의 초기 증세로 들어간다.

그런데 이런 상태일때 비타민 B₁을 투여하여 효력을 얻을 수 있는 것이다.

眼筋 마비 운동 실조도 치아민 투여로 개선된다.

역사적인 고찰을 더듬으면 1884년에 Adm. Takaki는 脚氣가 精米食餌에 기인함을 발견했고 Eijkman은 닭의 多發性 神經炎을 쌀겨로 예방 하였다.

Jansen과 Donath는 1926년 thiamin을 分離, 結晶하였고 1939년에는 William이 이를 합성했다.

正常要求量은 1일 2mg이고 일단 결핍중에治療目的의 量은 2~10mg이다. 10mg이상은 배설이 빨라 무효하므로 과량 투여에 독성은 없다.

약품으로 만들어진 製劑는 시판되어 지는 많은 상품명이 있지만 의사와 약사들은 化學名을 기억하니 소개하려 한다. 첫째 Dried yeast가 있다. Yeast라 함은 가정에 식빵을 만들때 부풀어 오르는 작용을 하고 구수한 맛도 내게 하는 物質로써 100mg당 10mg이라는 많은 量의 thiamine을 함유한다.

둘째로 Wheat germ(밀의 胚種)에는 100mg당 1mg이 비타민 B₁으로써 존재한다.

세째, 醫藥品으로 Thiamine hydrochloride (Aneurin)이 있는데 이것의 용량은 하루에 1~10mg을 경구(입으로 먹는것) 또는 皮下, 筋肉 및 정맥주사한다.

네째, Thiamine Tetra hydro Furfuryl Disulfide(TTFD). 이것의 用量은 1日 25~150mg을 3回로 分服하거나 5~10mg씩 靜脈注射, 皮下 또는 筋肉注射한다. 이는 약간의 副作用이 생기는 수가 있는데 가슴이 쓰리고 설사를 할 수가 있다. 특히 筋肉注射時에는 一過性인 疼痛이 있다.

다섯째, Thiamine mono phosphate disulfide (치아민 모노 포스페이트 디설파이드 TMPDS, TPDS)가 있다.

이것은 1回 25mg씩 1日 1~4回 筋肉 또는 靜脈注射한다. 副作用으로는 드물게 肛門搔痒感(항문 부위 가려움증)이 있다.

여섯째, Benfothiamine으로 用量은 1日 25~100mg씩을 經口投與한다.

가벼운 胃腸障害을 일으키는 수도 있다. 마지막 예로써 O-Benzoyl thiamine disulfide(올소벤조일 치아민 디 설파이드 BTDS), 이것은 1日 25~300mg씩을 經口投與하며 1回 10mg씩 皮下 또는 筋肉注射하거나 1回 25~100mg씩을 點滴靜注한다.

副作用으로 가슴이 쓰리고 설사를 일으킬 수 있으며 드물게 口角炎 및 舌炎을 일으킬 수있다. 이상의 藥品의 製劑들은 전문적인 지식을 터득한 전문인들에게는 필수적으로 기억해야 할 일이지만 만약에 자기 자신이 thiamin 결핍으로 인한 증세가 나타났다고 생각이 되거나 또는 비타민 B₁을 보충시켜야겠다고 생각될때 참고로 하려면 무척 저렴한 값으로 구입할 수가 있다.

태권도는 심한 운동에 포함된다.

결코 칼로리 섭취를 藥物로써 하는것 다시 말해서 영양제나 보약을 이용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하다.

藥은 남용할때 毒이 되는 것이요, 毒藥도 구히 미량을 적절히 이용할때는 醫藥으로써 구입을 하게 되는 것이다.

우리 몸에 異狀이 생길때 즉 신체가 비정상적으로 되었을때 藥物은 그 효력을 보게 되는 것이지 정상인에게 약물 투여는 결코 무의미하며 신체의 조화 상태를 깨뜨려 불균형 하게 만들 뿐이다. 요즘을 빈람하는 비타민 제제들 그리고 항생제(마이신종류)들이 사회적으로 커다란 問題로 대두되는 이유는 모두 醫藥에 대한 의존성 내지는 게으름에서 이다. 적절한 식사와 적절한 운동으로 건강을 유지시킴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태권도인에게 요구되는 영양소가 비타민 B₁ 이외에도 단백질, 지방 탄수화물, 무기질등 좋은 식품섭취가 중요함을 다 아는 사실로써 거듭 재론(再論)하였지만 무엇보다도 알코올의 과량 섭취를 삼가 하는 일이 시급하다.

알코올 中毒이란 用語가 결코 重한자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요,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생기는 것이다.

불규칙한 식사로 인한 비타민의 결핍에 이어 慢性 위염, 또 肝경화증, 까지 초래하는데 아직 까지 간경화증을 치료해 주는 藥은 결코 適當한 것이 없는 것으로 알고있다.

지금까지 자신의 건강에 대해서 커다란 자부심을 지녀 왔지만 더욱 더 식생활에 신경을 써서 인스턴트 식품으로나 또는 賣食으로 대신하기 쉬웠던 습성을 탈피하도록 노력하여야 하겠다

직접 市場에서 재료를 구입하여 음식을 만들어 먹는 生活이 가장 현명하게 영양소를 섭취하는 길이다.

食事後 소화제를 복용하는 일 대신에 적당한 체조(물론 10분 이상 휴식을 취한후)로써 위장을 튼튼히 하는일이 좋으며 아침 저녁으로 간단한 운동이 거듭 강조되는 현대인의 생활이다.

정신노동으로 대부분의 사람들이 많은 병을

얻어 병원이나 약국을 찾는다. 기계 문명의 발달과 더불어 人間은 너무나 편해 저서 운동 부족으로 고민하기에 이르렀다. 이들의 대부분은 과잉의 쓸모없는 칼로리가 체내에 축적이 되어 病을 생기게 했다. 반면에 소수의 태권도인은 너무 운동만 지나치게 하고 영양에는 거의 신경 쓸 여유가 없이 태권도에 심취하는 경우도 있다 언제나 우리몸은 조화와 평균상태를 원한다. 불균형으로 문제는 생기는 법이다.

비타민 B Group의 섭취에 신경을 써서 운동의 의욕감을 생기게 함도 중요하고 아침에 일어나서 태극 1장부터 8장까지 그리고 고려품세까지 3번씩만 반복함이 달리거나 산책에 못지않은 훌륭한 보전 체조가 되었다는 필자의 경험을 피력하며 글을 맺는다.

태권도에 대한 고마움

신학대학 1학년 유재숙

78년 1월 31일, 5년간의 화려한 외출을 청산하고 집으로 돌아왔다. 전국 방방곡곡을 순회 공연하며 즐겁고 보람찬 일들을 생각하면 온몸이 짜릿하고 가슴이 두근 두근거린다. 커다란 꽃다발을 목에 걸어 출때, 위에서 꽃 색종이를 막 뿌릴때 골짜기 황홀함에 젖어 버리곤했다. 그것의 인연으로 연예인이 되려고 나름대로의 큰 꿈을 꾸었으나 주위 어른들의 적극 반대로 모든 계획은 수포로 돌아갔고 꿈이 허물어지자 난 갈피를 잡지 못하고 방황하기 시작했고 '모든걸 잊어 버리려고 잠지도 쉬지 않았다. 불링치러 다니고 영화관을 모두 휩쓸고 다니고, 혼자 등산.....등으로 방황 하던중 태권도 라고 크게 쓰인 도장을 발견하곤 나의 생활과는 전혀 거리가 먼 것이었지만 펜스에 엉뚱한 것이 하고 싶어 입관했다. 그리곤 한달이 지나고 두달이 지나면서 어느새 난태권도의 매력에 사로잡히고 말았다. 우선 나

의 성격에는 변화를 가져왔다. 사소하고 시시한 일엔 무관심해지고 생각함이 크고 넓어지는것 같았다. 육체적 단련보다는 정신적 수양이 되는 면에서 내게 여간 큰 소득이 아닐수 없다.

태권도를 알게 됨에 한없는 고마움을 느낀다. 방황의 길에서 벗어 날수 있었고 몸과 마음을 한꺼번에 단련하니 어찌 큰 소득이 아니란 말인가.

모든 여성들에게 태권도를 권유하고 싶다. 현대 여성들의 사회 활동 범위가 넓어짐에 따라 여성들도 육체적, 단련으로써 자신을 지키고 태권도를 함으로써 오는 크고 넓어지는 마음씨가 꼭 필요한 것이다. 내가 좀더 어렸을때 부터 배울 생각을 못했던것 후회스럽기도 하지만 지금부터라도 열심히 배우고 익혀 이 훗날가 검게 변할때 까지 계속 될것이요 그후로도 태권도를 내몸과 같이 사랑하며 더욱 열심히 될 것이다.

신비의 경지속 『나』

동덕여자대학 약학과
4학년 박 심 희
〈태권도부 부장〉

Ether의 질은 내용속으로 손가락만한 흰 쥐가 마취되어 간다. 실험실의 회색 벽이 피곤하다. Latin어 病名, 藥名 암기로 캄백해진 얼굴들을 뒤로 하며 가운을 벗어 던진다. 그리고는 體育館으로 달린다. 거기엔 生動하는 맥박이 있고 호흡이 있다. 거기엔 우리 祖上들의 예리하고도 심오했던 영원한 東洋哲學인 武藝가 있다. 조용히 정좌하여 눈을 감는다.

77년 5월20일 태권도부가 수월하게 태어났다. 藥學科, 食品營養學科, 體育教育科...各科의 뜻 있는 친구들이 모두 모였다. 20명으로 제한했다. 그때 나는 초단이었는데 정말 햇병아리였다. 오후에 體育館에서 배운 것을 그 이튿날 오전 8시부터 9시까지 지도했다. 비록 서투른 우리였

지만 우리는 行動哲學의 경지속으로 맘껏 몰입할 수 있었다. 초창기에 우리는 많은 방황을 해야 했지만 이제는 부원도 많이 늘었고 유단자 배출도 눈 앞에 왔다.

나는 생각해 본다.

발차기와 주먹치르기가 우리 女大生들을 그토록 매혹시켰던가?

겨루기와 호신술을 익혀서 男子를 때려 눕힐 수 있다는 자만심이 우리를 그토록 매혹시켰던가?

절대로 아니다.

그러면 균형잡힌 몸매가 우리를 유혹했었던가?

그것도 아니다.

우리는 광란한 싸이키움악과 차가운 콘크리트 벽에 너무나 지친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단소를 부는 여유를 그리게 되었고 고운 한복 입고 먹을 가는 한국의 어머니, 우리의 여인을 동경하게 된 것이다. 우리는 武를 통해서 멋을 알게 되었다.

한국의 모든 여대생들이 태권을 타의에 의해서 알게 되는 것을 원하지 않는다. 뜻이 있는 여대생들이 계승하여 주길 원하며 발전시켜 주기를 원한다.

우리는 훌륭한 스승님을



많이 모시게 되었다. 정찬도 교수님, 김은환 교수님, 원청남 사법님..... 너무나 존경하는 스승님이다. 이제 곧 졸업을 하겠고 인류의 건강을 위하여 열심히 藥을 研究할 것이다. 돌이켜 보면, 태권도가 Campus의 삶의 순간 순간들을 정녕 보람있고 즐겁게 해 주었으며 면학에도 도

움을 주었다. 잔디 위에 노는 개나리가 빛난다.

그 곁에 우리 후배들의 기분 동작이 더욱 예쁘게 수놓아지고 있다.

연분홍 진달래는 수줍음도 잊은 채 살며시 엿보고 있다.

〈1978년 4월 25일 교정에서〉

신 체 단 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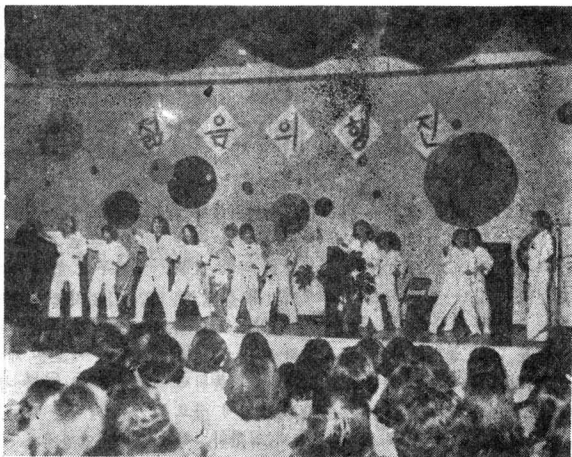
동덕여자대학 식품영양학과 2학년

이 종 각

태권도를 배우게 된 동기는 호기심도 있었지만 주된 목적은 신체단련을 함으로써 건강을 유지하려고 하였다. 어떤 운동이든지간에 단시일내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많은 시간을 필요로 한다. 여기에는 인내와 노력이 필요하다. 무슨 일이든지 간에 인내와 노력이 없이는 이루어 지지 않듯이 태권도에도 이것이 필요한 것이다. 이 운동을 통해서 자신이 규칙적인 생활을 할 수도 있고 어떤 일을 할때 이 일에만 정신을 집중할수 있는 힘이 길러지고 또한 어떤 고통을 이겨낼수 있는 힘이 자란다. 나의 운동은 아침 8시부터 9시까지였다. 일단 운동이 시작되면 온 정신을 운동에 집결시킨다. 기압을 내면 나의 모든 스트레스가 해소되고 마음이 후련해진다. 처음 태권도를 시작했을때 기압 소리는 쑥스러웠던지 자꾸 안으로 거들어 갔었다. 그러나 지금은 자신있게 발수가 있다. 모든 것이 자기에 익숙해졌을때 자신이 생기고 자기가 할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 같다. 수련할때 정신집중이 중요하다고 생각된다. 왜냐하면 정신집중이 되지 않는다면 어떤 것이든간

에 좋은 성과를 얻을 수가 없다. 운동한다는 것이 어렵고 많은 노력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고보니 선수들의 노고를 알 것 같다. 피로운 후에 기쁨을 맛볼수가 있지 편안한 생활을 해나가기 위해서 약은 피만 부리는 사람은 참 기쁨을 모를 것이다.

나는 건강을 위해서 정신 집중력을 기르기 위해서 또한 나 자신을 규칙적인 생활을 하게끔 이끌기 위해서 앞으로 태권도를 열심히 꾸준히 할 것이다. 자기 자신이 체험함으로써 많은 것을 얻을 것이다.



나의 수련기

동덕여대 약학과 2학년 이 순 옥

어려서부터 잘하지는 못하나 운동에 관심이 많았던 나는 언젠가는 태권도는 배워 보리라 마음 먹고 있었는데 대학에 와서 태권도 하는 선배언니를 만나게 되어 태권도와 나의 역사적인 상봉이 이루어 지게 된것이 1학년 5월경 이었다. 그때부터 씨름로 성립시켜서 오늘에 이르러 있다. 목화축제에 며칠 배우지도 않은것을 시범보이는데 발차기를 하다가 엉덩방아를 찧던일도 생각난다. 그리고 배가 고프다고 짬뽕을 먹었는데도 양이 안차서 우동 하나를 더 먹고는 배가 불러 움직이지도 못하던 재미 있는일도 있었다. 내가 태권도를 하게 된것은 나 자신의 건강을 증진시키며 좀더 알찬 대학생활을 보내보고자 함이었다. 막상 운동을 시작하니까 초기에는 매우 어려웠다. 하지만 신체적인 단련, 균형뿐만이 아니라 정신을 집중시킬수 있는 능력과 인

내력이 길러지며 유연한 몸매를 간직할수도 있고 젊은이다운 기상이 싹트는것 같다. 또한 태권도를 통해 우리민족의 얼을 찾아볼수있어 많은 도움이 되었다. 여자가 태권도를 한다는 것이 색다르고 아직은 꺼려지는 것이지만 태권도를 통해 신체나 정신의 수양을 할수있는 좋은 기회를 놓치고 싶지 않다. 가냘픈 여성에게도 내면의 힘은 강대해야 하지 않을까!

나는 태권도를 남자같이 과격하게 하지는 않는다. 여자에 맞도록 변형시켜서 나의 성장에 도움을 주게 하고 싶다. 많은 여성들에게 나는 태권도를 권한다. 왜냐하면 태권도는 아름다운 여성, 용기있는 여성으로 키워주기 때문이다. 끝으로 동덕여대 태권도부의 발전을 위해 열심히 땀을 다집한다.

기적 소리가 울릴때

동덕여대 경영학과 1학년 권 미 형

매르풍! 6시30분 우렁찬 시계 소리와 함께 오늘 하루의 문이 열린다. 잠이 아직 깨지 않은 상태에서 본능적으로 꾸역꾸역 밥을 먹고 집을 나선다. 일단 집을 나오면 그때까지의 명한 상태는 눈부신 햇살에 자리를 물러나고 아침의 맑은 공기를 맘껏 들이마시며 콧노래와 함께 발걸음도 가볍게 도장으로 향한다. 도장에 딱 들어서면 들뜬 상태에서 벗어나 침착한 분위기에 '사로잡혀' 정신 자세를 바로 잡고 운동에 임한다. 하

얀 도복을 입고 이 하얀 도복의 깃발이 울려지면 그날 하루의 기적이 울린다. 활기차게 오늘 하루도 힘찬 행진곡이 울려퍼지는 가운데 젊음이 넘치는 행진이 시작되는 것이다.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많은 호기심과 미지수로 packed 새로운 세계에 접하여 두렵고 어설피기만 한 나의 대학 생활에 이 기적 소리는 생명수같은 역할을 한다.

이인간에게 주어진 많은 길에서 특히 여성들

에게 있어서는 미개발 상태인 이길에 들어서서 어색하고 우습기만 했던 처음 며칠간의 수단을 겪고 난후 이제 겨우 한달 남짓하는 이 지점에서 하루하루가 보람있고 즐겁기만 하다. 아직 여성들에게 있어서는 많은 사람의 지나간 자국이 없는 터라 미개척지를 개발해 나가는 점에서 자부심과 함께 더욱 흥미를 느끼게 하는 운동이다.

아이! 아이! 기적 소리가 울린다. 힘차게 뻗는 팔에서 힘차게 올리는 다리에서 앞으로 이 나라를 짊어진 역군의 참된 모습이 엿보인다.



태권도지는 여러분의 책임입니다.

여러분의 원고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보내주신 원고는 최선을 다해 실겠습니다

☆ 부디 발전하는 태권도를 위하여 투고하여 주십시오 ☆

1. 종 류 : 논문(태권도의 발전을 위한 내용)수필, 시, 수련기, 사진, 만화, 단편소설등

※ 특히 벽지나 도서지방 및 학교소식

2. 방 법 : 200자 원고지 10매단위로 20매, 30매.

3. 보내실곳 : 우편번호 100 서울 중구 무교동 19번지

대한태권도협회 편집실

— 아쉬운 작별 —

山寺의 餘韻

師 範 南 重 國



지난 일년의 공부가 낙
방으로 결산되자 78년의
제도전을 놓고 년초에 정
신적 휴식을 갖고 싶어 경
주 소금강산 백물사를 찾
게 되었다.

이 절은 신라 천년의 고
찰로서 이차돈 승사의 봉

행투쟁 기념사지이다.

5년전, 등산왔을 때 주지 김법련스님으로부터
원효대사께서 지은 한글풀이 “유심안락도”란 책
을 받은것이 인연이 되어 다시 이 절을 찾게 된
것이다.

(78년 1월 14일), 입산 하던 날 열차에 시달
려 피곤한 몸으로 무거운 가방을 들고 산을 오
르다 산중턱 입구 보물 121호 사면석불 아래서
쉬는 도중 중학생 셋을 만났다. 이른아침마다
건강을 위해 등산을 한다는 이 학생들은 매일
황성공원으로 다녔었는데 그중 한 아이가 간밤
에 꿈을 꾸고 백물사로 행선지를 바꾼 첫날 나
를 만났다고 했다. 꿈에 어떤 사람이, 잃어버린
가방을 찾아주고 친구가 되자고 하더라.

인연의 암시였을까?

무거운 책가방을 들고는 돌계단 222층계를 올
랐다. 진배, 태종, 장수 이렇게 알게되어 새벽
마다 태권도를 가르치게 되었다.

태권도.

이름도 듣고 구경도 했기에 분명 관심은 많은
데 학생들은 불행하게도 기본동작 하나 알고 있
는것이 없었다.

중학생이 그동안 무얼 했을까? 國技를 하나

도 모른다니.....의심스러울 정도였다. 국민학교
중학교, 고등학교까지 체육 교과서에 태권도가
수록된것은 기존사실인데 학교 체육교육의 못마
땅함에 분노가 슬쩍 치밀어 올랐다. 나는 지금
껏 닦아온 태권도에 관하여 종주국이란 자부심
을 갖고 가슴 뿌듯함을 감출 수 없는것이 사실
이지만 지금 자라는 후배 청소년들이 태권도를
모른다는것은 교육행정에 무언가 잘못된 것이
아닐까 싶다.

이튿날 새벽 6시 40분부터 사면석불 옆 숲속
빈터에서 1시간 30분동안 태권도 수련은 시작
되었다. 우렁찬 기합소리가 고요한 산골짜기에
메아리치고 준비자세부터 차근 차근 익힌것이
한달 보름 남짓된 지금에는 태극 4장 구명없이
능숙하게 잘도 한다. 앞차기도 할 줄 모르던 애
들이 이제는 열차기, 돌려차기, 뒷차기까지 하
게되니 가르치는 내 마음이 호뭇할 수 밖에 더
있으랴! 눈이 오면 눈을 쓸고 우리의 야외도장
을 정리했고 싸늘한 겨울, 서라벌의 바람이 차
가워도 쉬는날이 없었다. 이렇게 열성적인 애들
이 체육관엔 못나간것은 여의치 못한 가정형편
때문이었을 것이다. 보수없는 지불이라는것이
애들과 나 사이에는 하나의 인연으로 응집된 바
로 인간애였다.

오늘은 오후까지 마지막 수업으로 태권도의
유래얘기, 태권도정신, 기본동작, 약속겨루기,
발차기연습, 품세 태극 4장,처음부터 배운
데까지 총복습으로 끝냈다. 그동안 추운날씨에
고생도 되었지만 배우는자나 가르치는 나도 정
식으로 임했었다.

시내 친구에게 도복을 빌려 띠 매는법, 도복

접는법까지 가르쳤으니 초보단계는 거의 마스트한 셈이다.

인간.

역시 인간은 혼자서는 외로운 것이다. 짧은기간 동안 이 山寺에서 나를 찾는 유일한 방문객이었고 나도 같이 운동을 했으며 무오년 음력 정월 초하룻날, 구정때는 만두국과 떡 그리고 과일을 싸들고 찾아와 세배까지 하는 애들이 내게는 다시없는 귀엽둥이였던 것이다.

이제, 내일이면 떠나야 하는 나. 이곳 소금강

산 백록사에 남는 잊지 못할 추억이요, 앞으로 행여나 태권도의 大家를 기대해 볼지도 하다.

서울가면 꼭 태권도 교본을 사서 붙여 주어야겠다는 마음을 먹고 마지막 밤을 맞이 하면서 단꿈을 청해본다. 山寺의 餘韻을 깊이 간직하면서.....

<78년 2월 27일

慶州 小金剛山 栢栗寺 松竹堂에서>

— 詩 —

山 寺

경주시 동천동 소금강산 백록사
이차돈 승사의 봉행투쟁 기념사지
들계단 222층계마다
불도의 일이 서려
신라 천년의 사적을 더듬는다.

숨바꼭질 다람쥐
노래하는 산새도
어둠갈린 밤이면
행복의 보금자리
남모른 침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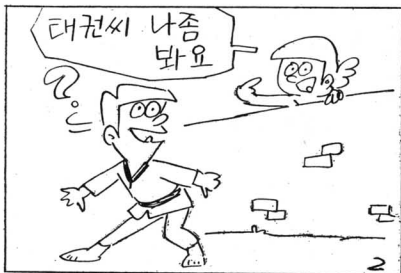
——묵탁소리 굴불암
동서남북 사면석불
대웅전 여래좌상
삼성각 약수터
독야청청 송죽당——

여기
외로운 山寺에 범종소리 울려
오늘이 밀려가고
경전한 합장속에
또
내일이 달려온다.



태순양

최경철



협 회 동 정

☆1978년 3월 2일~11일

제 23기 지도자 교육

장 소 : 국기원

수강생수 : 88명

☆1978년 3월 12일(1차), 19일(2차)

제 72회 승품심사대회

장 소 : 국기원

응심자수 : 1차~650명, 2차~625명

☆1978년 3월 23일~27일

1978년도 전국태권도 신인선수권대회

장 소 : 국기원

참가자수 : 937명

☆1978년 4월 1일

일본 공수도사협회(회장—후카야다카시) 회원

28명 국기원방문 김운용원장예방후 연무시범

관람.

☆1978년 4월 6일

외국인지도사범소양교육

장 소 : 국기원

참가자수 : 39명

☆1978년 4월 9일(1차), 22일(2차)

제 73회 승품심사

장 소 : 국기원

응심자수 : 1차~750명, 2차~739명

☆1978년 4월 11일~13일

제 16기 3급 심판강습회

장 소 : 국기원

참가자수 : 190명

☆1978년 4월 14일~16일

프레월드게임 태권도대회파견 한국대표선수

선발 제 1 차전

장 소 : 국기원

참가자수 : 424명

☆1978년 4월 22일

제 81회 승단심사대회(4단이상자)

장 소 : 국기원

응심자수 : 42명

☆1978년 4월 23일

제 81회 승단심사대회(3단이하자)

장 소 : 국기원

응심자수 : 823명

☆1978년 4월 29일~5월 1일

프레월드게임 태권도대회 파견 한국대표선수

선발 제 2 차전

장 소 : 국기원

참가자수 : 399명

☆1978년 5월 8일~10일

전국 중고등학교 회장기 쟁탈 태권도 대회

장 소 : 국기원

참가자수 : 중등부 204명, 고등부 363명

☆1978년 5월 13일

프레월드게임 태권도대회 파견 한국대표선수

선발 최종전

장 소 : 국기원

참가자수 : 36명

☆1978년 5월 14일(1차), 21일(2차)

제74회 승품심사대회

장 소: 국기원

응심자수: 1차~751명, 2차~667명

참가자수: 90명

☆1978년 6월 6일(1차), 11일(2차)

제 75회 승품심사대회

장 소: 국기원

응심자수: 1차~739명 2차~740명

☆1978년 5월 24일

인도네시아 체육회 부회장(코사시)국기원

방문코 연무시범대회

장 소: 국기원

☆1978년 6월 23일

미국 로스앤젤레스 타임스지 동경지국장

국기원 방문코 연무시범대회

장 소: 국기원

☆1978년 5월 28일~29일

제 7 회 소년체육대회 태권도대회

장 소: 대구고등학교강당

참가자수: 88명

☆1978년 6월 30일~7월2일

프레월드게임 태권도초청선수권대회

장 소: 국기원

참가국 및 인원: 19개국 23개팀 276명

☆1978년 5월 30일~31일

제 5 회 국민학교 개인선수권대회 겸 제 4 회

연맹회장기 쟁탈 전국 국민학교 태권도대회

장 소: 국기원

참가자수: 274명

☆1978년 6월 30일

김운용 세계태권도연맹총재 초청 프레 월드게

임 태권도 대회 참가국임원 선수단 및 내외귀

빈 환영연

장 소: 한국의집

인 원: 400명

☆1978년 6월 2일~3일

프레월드게임 태권도대회 파견 여자부

한국대표선수 선발대회

장 소: 국기원



응원에 열 올리는 여자 태권도 응원단

K.T.A. Journal

***March 2~11, 1978**

The 23rd Taekwondo Instructors refresher course

Place: Kukkiwon

Applicants: 88 persons

***March 12, 19, 1978**

The 72nd Poom Promotion Test

Place: Kukkiwon

Applicants: 1275 persons

***March 23~27, 1978**

National New Face Taekwondo Championships of the year 1978

Place: Kukkiwon

Participants: 987 Persons

***April 1, 1978**

A group of 28 Japanese Karate delegation, led by former Dietman Takashi Fukaya, paid a goodwill visit to Dr. Un Yong KIM, President of the World Taekwondo Federation and observed Taekwondo demonstration

***April 6, 1978**

Training course for instructors teaching aliens

Applicants: 39 persons

***April 9, 22, 1978**

The 73rd Poom Promotion Test

Place: Kukkiwon

Applicants: 1489 Persons

***April 11~13, 1978**

The 16th Referee Training Course

Place: Kukkiwon

Participants: 190 Persons

***April 14~16, 1978**

The 1st Korean Preliminary Tournament for Pre-world Games Taekwondo Championships

Place: Kukkiwon

Participants: 424 Persons

***April 22, 1978**

The 81st Dan Promotion Test (Up 4th Dan)

Place: Kukkiwon

Applicants: 42 Persons

***April 23, 1978**

The 81st Dan Promotion Test (Under 3rd Dan)

Place: Kukkiwon

Applicants: 823 Persons

***April 29~ May 1, 1978**

The 2nd Korean Preliminary Tournament for Pre-world Games Taekwondo Championships

Place: Kukkiwon

Participants: 399 persons

***May 8~May 10, 1978**

The 4th Middle and high School

Taekwondo Championships.

Place: Kukkiwon

Participants: Division of Middle 204 Persons

Division of high 363 persons

***May 13, 1978**

The final Korean Preliminary tournament for
Pre-world games Taekwondo Championships
Place: Kukkiwon
Participants: 36 persons

***May 14, 21, 1978**

The 74th Poom Promotion Test
Place: Kukkiwon
Applicants: 1418 persons

***May 24, 1978**

Gen Kosasih, vice-president of Indonesian
Sports Association visited Kukkiwon and
observed Taekwondo demonstration.

***May 28~29, 1978**

Taekwondo Tournament for the 7th National
boys Athletic Games
Place: Gymnasium of Taegu high School
Participants: 88 persons

***May 30~31, 1978**

The 5th Primary School Taekwondo
Championships.
Place: Kukkiwon
Participants: 274 Persons

***June 2~3, 1978**

Korean Women Preliminary Tournament for
Pre-World Games Taekwondo Championships
Place: Kukkiwon
Participants: 90 persons

***June 6, 11, 1978**

The 75th Poom Promotion Test
Place: Kukkiwon
Applicants: 1479 Persons

***June 23, 1978**

Mr. Sam Jameson, Manager of Tokyo branch,
The Los Angeles Times visited Kukkiwon and
observed Taekwondo demonstration
Place: Kukkiwon

***June 30~July 2, 1978**

Pre-world Games Invitational Taekwondo
Championships
Place: Kukkiwon
Participants: 19 countries 276 persons

***June 30, 1978**

Reception for the participants of Pre-world
Games Taekwondo Championships by Dr.
Un-yong KIM, president of W.T.F.



⇒ 김운용 회장이 배운 오찬회
에서 담소를 나누며 식사를
하는 프레월드게임 태권도대
회 파견 한국 남녀 대표선수
들의 모습(조선호텔 라운지
에서)

태권도 보법

경기용 보법에 대해서

국제도장 사범 안 해 옥

태권도에 있어서 발놀림은 기술상의 발전이 되는 만큼 그 가치도가 깊어지며 발놀림이 없는 태권도는 그 생명이 죽은거나 마참까지이다. 그 수도 헤아릴 수 없는 보법을 짧은 지면을 통해 기술할 수 없거니와, 비교적 단조로운 경기용 보법만을 발해 한다 해도, 그 깊은 해부학적 근육학적 요소나 보법의 형태에 따라 노출 되는 급소의 명칭, 그 방어법, 연결법, 반대법, 호흡법, 힘의 자 부위별 배열 상태, 기의 흐름, 관절의 각도, 몸과 발의 가장 효율적인 각도, 전체적인 몸의 움직임 따위를 정확하게, 그리고 과학적인 실질을 통해 정리 하려면, 방대한 분량이 될 것이고 장구한 시간이 요할 것이다. 그래서 태권도 지도자라면 누구나 알고 있고, 태권도 선수라면 평소에 경기장에서 늘 하고 있는 보법의 모양만을 정리했다.

경기용 보법의 특수성

경기는 태권도의 극히 일부분이며, 공격 범위가 지극히 한정되어 있으므로, 손이나 발로서 방어하고, 근접된 상태에서 얼굴이나 아래를 공격할 수 없다. 따라서 실전 태권도의 보법과는 다른 양상으로 반격 형태상 특징으로 연결 시키기 위해서 몸 전체로 피하므로 기법상 세밀하지 못하고, 그 행동 반경이 클 수 밖에 없다.

<도면을 보는 법>

1) 오른발이 앞으로 된 상태의 보법만을 그렸다. 왼발이 앞이면 먼저 움직이는 발을 바꾸어 그리면 된다.

2) 발 모양 옆에 아라비아 숫자가 없는 것은

기준되는 발이다.

3) 하나의 보법을 거꾸로 뺀으면 반대 기법이 생겨난다.

<경기용 보법의 도면>



<1>

<2>

<1> 손 공격으로 올라가는 과정.

(공격)——오른발 돌려차기. 반달차기

<2> 상대의 한 수 공격을 거리 조정으로 피하는 방법. (공격)——왼 옆차기, 앞차기, 오른돌려차기, 반달차기



<3>

<4>

<3> 앞차기 공격을 왼손 아랫막기하며 전진 공격——오른 주먹 지르기, 왼발앞차기, 돌려차기, 옆차기, 뒤집어 발날차기

<4> 오른 발 왼발 바로 빠지면서 (공격)——왼발 몸 돌려 후려차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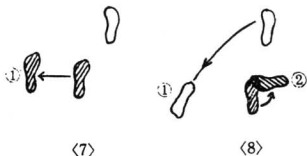


<5>

<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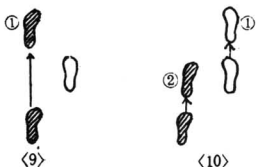
〈5〉 앞 발 물려 왼발 앞으로 꼬아 몸 회전시켜 (공격)——왼발 뒷차기, 발바닥 올려차기 (① ② ③)

〈6〉 상대의 깊은 공격을 피하고 오른발 되밟아 공격. (공격)——오른발 앞차기, 왼발 앞차기도 가함.



〈7〉 중심을 왼발에 크게 둔다. 상대의 앞은 공격에 쓰임. (공격)——오른 주먹 지르기. 오른발. 반달차기. 돌려차기

〈8〉 깊은 공격 피해서 도망하는 상태. (공격)——왼발 뒷차기



〈9〉 엉거주춤한 상태의 상대를 급속히 나아가서 공격 또는 거리가 충분한 상대에 행동 타진 및 접근. (공격)——주먹 지르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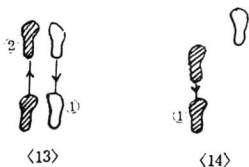
〈10〉 상대에게 공격 거리를 주지 않고 접근 또는 떨어진 상태에서 접근. (공격)——오른발 앞차기 발바닥차기 주먹 지르기



〈11〉 물려나며 반격. (공격)——오른발 앞차기 왼 내리찍기. 앞차기

〈12〉 충분한 거리 시간적 여유가 있을때 한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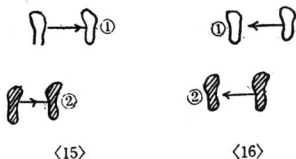
내밀어 (공격)——뒷발 돌려차기 앞차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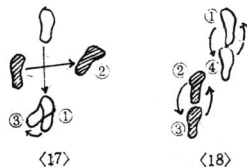
〈13〉 제자리 발 바꾸기.

상대의 의사 타진과 쓰기 좋은 발을 공격할 수 있게 대기 시키고, 상대의 자세가 좋아하지 않는 자세 일때의, 자세 변경, 연속 동작도 가함 ①과 ②는 시간 차 거의 없음. (공격)——주로 내리찍기

〈14〉 제자리 상태에서 높은 뒤돌려차기 등을 자세를 낮추어 피한다. (공격)——오른 옆차기 발아차기. 호미차기 <앞차기 반대기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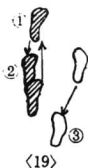


〈15〉 직선적인 힘의 공격이 올때 (공격)——원 앞차기. 돌려차기. 오른 앞차기. 반달차기
〈16〉 (공격)——왼발 구부러 뒤돌려 차기. 오른 비틀어차기 뒤집어 발날차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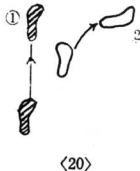


〈17〉 상대 공격이 직선 공격 후 곡선 공격(후려차기 등)으로 이어질때 같은 기법 반격(공격)——오른 뒤돌아 후려차기

〈18〉 반보 나아갔다 제자리 다시 밟는다. 행동 타진과 공격태세 완벽, 율동적이어야 함 ① ②와 ③④는 시간차 거의 없음.



<1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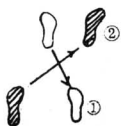
<20>

<19> 기술을 걸려다 상대 공격이 먼저 왔을 때 뒤로 물리는데 연속 기술을 걸어와서 반격의 여유가 없을 때, 상대가 계속 공격시는 왼쪽 기술 상대의 공격 중지된 오른쪽 기술을 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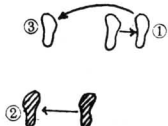
(공격)——앞차기 주먹 지르기

<20> 왼발 내딛어 기술을 걸려다 상대도 공격 할려 해서 서로 엉겨주춤한 상대 일때, (공격)

——왼발 돌려차기 반달차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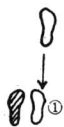
<2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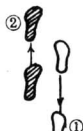
<22>

<21> 한 수 공격 후 빠지는 상대를 사각으로 추격

<22> 오른쪽 이동하는 척 하다 왼쪽으로 이동 원거리 상대를 가격 (공격)——뒷발 돌려차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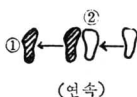
<23>



<2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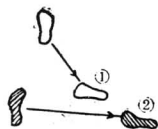
<23> 거리 조절에 자신이 없으면 하기 어려운 고등 수법. 정확히 몸 한치 앞에 공격을 끊고 빠른 반격을 한다.

<24> 적을 유인 끌려오지 않을때 반보 단축. 선제 공격을 가한다. (공격)——앞차기 내리찍기



<연속>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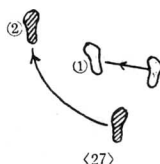
<25>



<26>

<25> 나란히 선 상태에서 상대의 주위를 돌면서 공격 기회를 노린다. 예봉을 피하고 상대를 관찰 할 때 쓰임.

<26> 상대의 뛰어서 깊은 공격을 완전 측면으로 방향 전환하여 빠진다. (공격)——앞차기 발 바닥차기 내리찍기 뛰어 후리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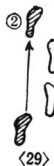
<2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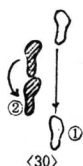
<28>

<27> 상대의 체중 실은 공격시 (공격)——오른 돌려차기 왼 앞차기

<28> 거리 좁혀, 기술 선제 공격 함 때 (공격)——앞차기 반달차기



<2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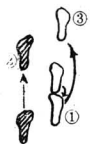


<30>

<29> 앞 발을 약간 당기는 것은 균형 된 상태에서 앞 쪽으로 몸의 중심을 무너뜨려 나아갈에 신속해 지기 위해서다. 앞으로 들쭉날 발로 공격함은 몸의 노출을 꺼리기 때문이다.

(공격)——오른 앞차기 오른 내리찍기

<30> 상대의 깊은 공격에 이어얏은 공격이 올 때. (공격)——왼발 앞차기 오른 앞차기 내리찍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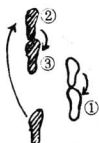
<3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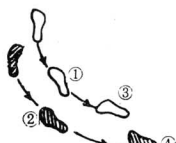
<32>

<31> 한 걸음 나아갈때 상대가 더욱 도망갈 때 쓰임. (공격)——앞차기, 내리찍기, 반달차기

<32> 상대와의 거리가 한 걸음으로 공격 거리가 부족할 때. (공격)——앞차기, 발바닥차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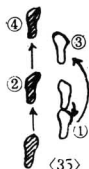
<3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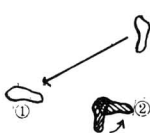
<34>

<33> 한 걸음 나아가 공격 할러는때 상대의 되받아 차기가 있을 때. (공격)——앞발 앞차기 뒷발 몸돌려 열차기.

<34> 상대의 공격을 곡선을 그리면서 뒤로 빠진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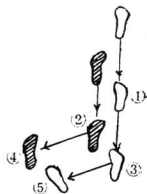
<3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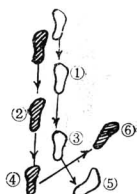
<36>

<35> 세 걸음 나아가 오른발 공격. 세 걸음 이상은 추적이 필요 없다. 네 걸음 정도면 장외가 되기 때문이다.

<36> 오른발 박차서 측면으로 선다. (공격)——몸돌려차기 뒷차기 뒤돌아차기 원형차기(몸돌려내리찍기)



<3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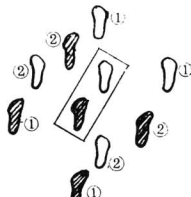
<38>

<37> 상대의 공격이 반격의 여유 없이 들어올 때 피하는 방법 세 걸음 이상 빠지면 「파인」밖주의를 받기 쉽다. (공격)——오른 휘감기, 돌려차기 왼 돌려차기

<38> 37의 반대로, 오른쪽 틀기. (공격)——뒤어 몸돌려차기, 왼발 원형차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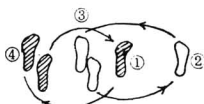
<3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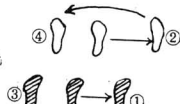
<40>

<39> 상대의 연계 동작의 속도가 지나치게 빨라 도저히 반격의 여유가 없을 때는 乙字모양으로 빠지다 크게 돌아서 상대의 리듬을 깬다.

<40> 뒤어 옮기는 방향은 네 곳이며 제자리 뛰기도 한다. 상대 정면 공격시 몸돌려차기를, 전후 이동하며 앞차기를 쓰나 떨어지는 순간이 위험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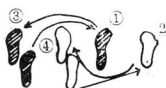
<4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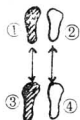
<42>

〈41〉 좌우 이동의 훈련보법.

〈42〉 좌우 이동의 기본이 됨으로 연습시 쓰이고 실전에도 응용이 된다.



〈43〉



〈44〉

〈43〉 옆으로 선 상태에서 좌우이동.

(공격)앞차기 주먹 지르기등 단조롭고 빠른 공격만 가함.

〈44〉 앞으로 나아갔다 제자리로 돌아온다. 속달되면 ① 다음에 ②를 차기로 변형하고 찬 발을 ③하면 발이 계속 바뀐다. 두 사람이 마주 보고 서서 연습한다. 속달되면 몸돌려 옆차기 등도 가능하다.

보법의 단련방법

1) 다리에 무거운 물체를 달고서 앞 축만을 지면에 붙인채 빨리 밟기를 한다 (이용물——모래, 철편)

2) 역기등 무거운 물체를 어깨에 메고서 보폭을 최대로 줄여서 전 후 좌우로 빨리 이동한다.

3) 모래밭이나 무릎 이하로 차는 물속에서 달리기를 한다.

4) 무쇠로 만든 무거운 신발을 평소에 신고다니거나 훈련시 사용한다.

5) 발바닥을 지면에 딱 붙인 상태에서 앞축과 뒷축을 번갈아 틀면서 옆으로 이동한다.

맺는 말

경기용 보법이라기 보다 발 모양만을 쓴 느낌이고 또 사실이다.

흔히 『태권도의 기술은 몇이나 됩니까?』라는 질문을 받는다. 『팔만 사천 가지는 되지요』라고 대답하면서도 아마 천문학적 숫자는 되리라 생각한다. 혼자서 아는 기법도 일만 가지 이상을 아는데 전 태권도인의 지식을 한데 모아서 집필하면 국기원을 책으로 가득 메울 수 있으리라 자신한다.

그렇게 체계화, 이론화 되었을때 경기기법 몇가지와 신체적 우수성을 믿고 자만하는 외국의 수련생들은 무한의 태권도를 깨닫고 승복 할 것이며, 대한민국은 태권도의 영원한 종주국일 수 있다. 알고있는 지식을 정리해서 남길 기회가 주어졌을때, 태권도의 보법도 완성될 수 있을 것이다.





토나먼트의 由來와 대전표 작성

大學跆拳道聯盟 總務理事 鄭 煥 謨

跆拳道 선수의 양적증가와 인구의 저변확대는 그에 따른 많은수의 대회와 체급별 인원의 증가를 가져왔다.

그리하여 참가선수, 장소, 시간을 유효적절히 사용할 수 있는 토나먼트가 경기의 方式으로 실시되고 있다.

그러나 아직까지 토나먼트의 由來, 경기方式 對戰추첨, 對戰표작성의 실례 등에 관한 이해와 자료가 부족한것 같아 지도자, 선수, 일반수련생을 위한 토나먼트의 由來, 對戰표 작성에 관한 概要를 적어본다.

1. Taunament의 由來

Taunament란 Torneimontun, Torneamentun에서 由來한 말로서 地方에 따라서 Buhurt Touney 또는 Turnier라고도 부른다.

Tounament란 古代 騎馬경기의 하나로 集團對抗의 騎馬경기였다. 원래 騎馬에는 劍을 차고 槍을 든 기사가 일대일로 技術을 다루는 Joust와 完全武裝한 騎士가 槍을 잡고 말을 달려 상대를 落馬시켜 승부를 가리는 Tounament가 있었다.

이中 特히 Tounament는 古代의 운동경기의 主種目으로 경기의 제 2일이나 제 3일에 行하였다.

Tounament 경기는 양편의 기마대가 마주보고 對陣하여 있다가 試合開始의 신호와 함께 일제히 적을 향해 突進한다. 상대방에 접근하여 충돌의 순간에 말을 비껴 槍으로 찌르기도 하고 槍이 격이고 말은 꺾어지고 騎士는 落馬하기도 한다.

馬上에 建在한 勝者는 다시 말을 돌려 相對를

向해 돌진한다.

落馬한 者는 地上에서 격투한다. 시간이 흐름에 따라 騎士와 말은 死傷이 누적되고 人馬의 出血은 눈으로 볼 수 없을 정도로 참혹한 광경을 이룬다.

이와같이 Tounament란 말을 채찍질하며 전속으로 돌진하여 馬上에서 槍을 겨루어 敵을 찌르며 쌍방이 격돌하는 것인데 어느쪽이건 한쪽의 槍이 격이거나 落馬하게 된다.

이런식의 경기를 勝負가 날때까지 몇번이고 계속한다. 이렇게 해서 最後의 勝者를 뽑았다.

그러나 古代의 Tounament는 人馬의 큰 損失을 가져와 時代가 흐름에 따라 人馬의 損失과 危險을 防止하기 위하여 그 경기 규칙이 改正發達하였고 이러한 方法이 Sports에 적용되어 한차례의 겨루기가 끝나면 약자가 敗하는 對戰의 편성방법으로 語意가 變化되었다.

2. 경기方式 및 對戰표작성의 概要

참가팀 또는 참가자가 많고 장소와 시간 등에 제한이 있을 경우에 채택됨이 보통이다. Tounament의 對戰표決定은 試合의 팀 또는 인원의 숫자에 의해 조절해야 된다. 즉 최후의 對戰은 2팀(人)이고 준결승은 4팀(人), 준준결승은 8팀(人) 등이 된다. 不戰勝조의 결정은 2의 제곱의 수에서 참가팀수를 뺀것과 같으며 추천번호 1번에서 부전승 수까지에 해당하는 번호를 추천한 선수는 1回戰을 不戰勝으로 통과한다.

예를들면 참가자가 31명인 경우에 2의 제곱수(2, 4, 8, 16, 32, 64...) 32에서 31을 뺀 수 즉 1명이 되며 1번을 추천한자는 1回戰에서 不戰勝이

다. 40명인 경우는 $64-40=24$ 명(1~24번 1회전 부진승) 50명인 경우는 $64-50=14$ 명(1~14번 1회전 부진승)이 된다.

그리고 총對戰回數는 참가자수에서 1을 뺀 수이다. 그러므로 전체에 소요되는 시간은 對戰回數에 총對戰回戰를 곱하여 산출하면 된다. 자기와 對戰할 선수를 알기 위해서는 자기의 對戰表추첨번호와 상대편의 번호를 알면 된다. 자기의 번호와 상대의 번호수를 합한것을 對戰편성수라 하는데 이는 2의 제곱수에 1을 더한 숫자와 같다. 즉 4명이 出戰 했을때는 $4+1=5$, 6~7명은 $8+1=9$, 9~16명 일때는 $16+1=17$, 17~32명 일때는 $32+1=33$, 33~64명 일때는 $64+1=65$ 가 된다. (대전표 작성의 실체참조).

위와같은 原理를 公式으로 표기하면 다음과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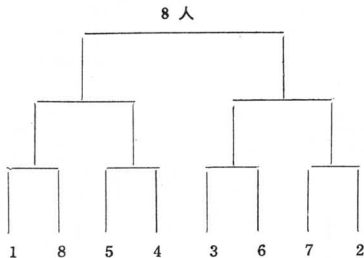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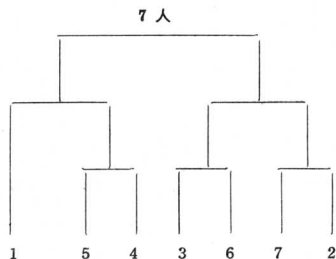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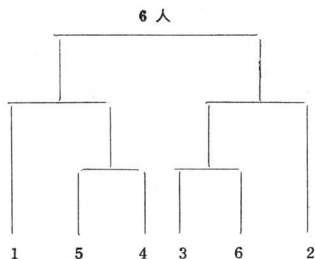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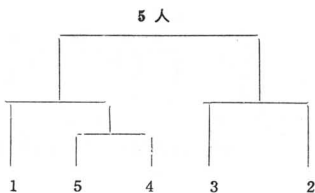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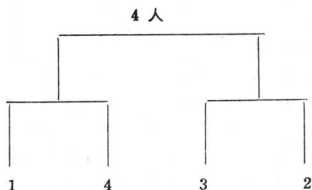
$$X=n-1 \quad \begin{pmatrix} X: \text{시합총수} \\ n: \text{참가자수} \end{pmatrix}$$

$$Y=2^m-n \quad \begin{pmatrix} Y: \text{부진승수} \\ m: \text{자 연 수} \\ n: \text{참가자수} \end{pmatrix}$$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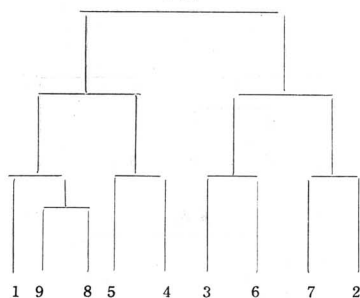
$$S=2^n+1 \quad (S: \text{대전편성수})$$

이와같은 Tournament의 장점은 많은 선수가 참가 할 수 있고 약자는 빨리 탈락된다. 단점은강자끼리 조편성이 되어 강한선수가 초반에서 탈락하는 수가 있다. 이러한 점을 시정하기 위해서 敗者부활전과 시드법(우승 또는 준우승자가 초반에서 만나지 않도록 조를 편성하는 경기방식)이 있으나 아직 태권도 경기에서는 적용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여기서는 생략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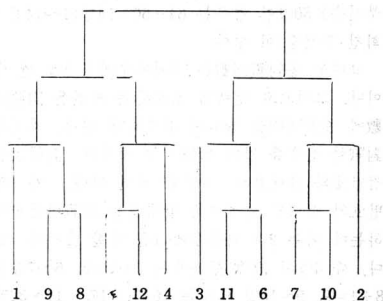
3. 對戰表 作成의 實際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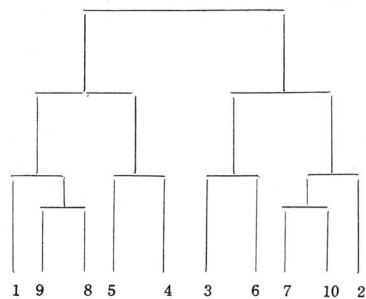
9 人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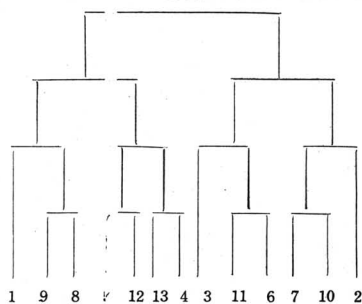
12 人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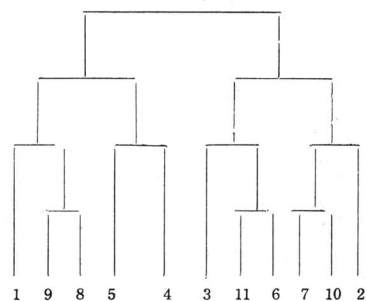
10 人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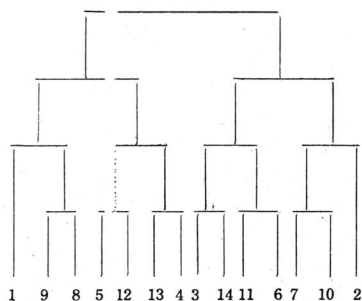
13 人



11 人



14 人



人体運動의 力學的原理

Thesis of vital dynamics for Taekwondo.

〈連載 3回〉

공군사관학교 체육과 소령 안 횡 군

2) 선운동

뉴턴의 제 2 법칙에서 물체에 힘이 가해질 때 생기는 가속도는 힘에 비례 하고 물체의 질량에 반비례한다.

즉 $a = \frac{F}{m}$ 혹은 $F = ma$ 이다.

한편, 가속도는 속도의 변화율이므로 $a = \frac{v_f - v_0}{t}$ 로 나타낼 수 있다. 그러므로 $F = ma$ 에서 a 대신 $\frac{v_f - v_0}{t}$ 를 바꾸어 놓으면 $F = \frac{mv_f - mv_0}{t}$ 가 된다. 이 식을 변형하면 $Ft = mv_f - mv_0$ 가 된다.

위 식에서 Ft 를 충격량(impulse)이라 하고, $mv_f - mv_0$ 를 운동량(Momentum)의 변화라 한다. ⁽⁴⁶⁾

운동량은 질량 곱하기 속도이므로 움직이고 있는 물체는 운동량을 갖는다. 시간과 공간으로 나타내는 충격량은 운동량인, 변화를 이루고, 반면에 운동량은 충격량의 변화를 이룬다.

따라서 충격량과 운동량은 직접 비례한다. 한편, 속도보다 운동량을 사용해서 뉴턴의 제 2 법칙을 다음과 같이 말할 수 있다. 즉 물체의 운동량의 변화는 가해진 힘과 시간의 곱에 비례하고 운동량의 변화의 방향은 가해진 힘의 방향과 같은 쪽에서 일어난다.

3) 각운동

(1) 각 운동량

뉴턴의 제 2 법칙 $F = ma$ 의 방정식을 회전

운동에 적용하기 위하여 양변에 회전 반경 r 을 양변에 곱하면, $Fr = mar$ 가 된다. 여기서 좌측의 값 $F \times r$ 은 회전능률(Torque)을 나타낸다. 그리고 우측의 값 mar 에 선가속도와 각가속도에서 나타낸 $a = r\alpha$ 를 대입하면 $mr^2\alpha$ 가 된다. 그런데 주어진 물체에서 m 과 r 의 값은 일정하기 때문에 $mr^2 = I$ 라는 일정한 상수로 바꾸어 놓을 수 있으므로 $T = I\alpha$ 라는 방정식을 쓸 수 있다. 여기서 $I = mr^2$ 를 관성능률(moment of inertia)이라 불리어 진다. ⁽⁴⁷⁾

회전운동에서 관성능률은 선운동에서 질량과 비슷하다.

선운동량이 질량과 선속도에 의존하는 것과 같이 각운동량은 관성능률과 각속도에 의존한다 따라서 각운동량은 물체의 관성능률과 각속도의 곱으로 나타낸다. 즉 $L = (mr^2) \omega = I\omega$ ⁽⁴⁸⁾

그리고 $T = I\alpha$ 식은 회전능률과 관성능률의 관계 식이다. 그러므로 관성능률이 크면 회전하는 데 큰 힘이 요구되고 관성능률이 작으면 회전능률도 작아진다. 따라서 회전능률이 일정하면 관성능률이 적은 편이 큰 회전속도를 얻는다.

이와같이 회전운동에 있어서 운동을 지배하는 최대의 요인은 관성능률이다. 즉 신체와 분절을 굽힐 때에는 관성능률이 작게 되어 그 회전속도가 크게 되고 반대로 펼 때에는 관성능률이 크게 되어 회전속도가 작게 된다. 따라서 회전운동에서 회전속도의 변화는 주로 자세 변화에 따라 생기는 관성능률의 변화에 의한다고 말할 수 있다.

이상에서 선운동과의 관계를 표 <2>와 같이 나타낼 수 있다.

<표 2>

선운동과 각운동의 관계

			선 운동	각 운동	관 계
변	위		$d(\text{distance})$	$\theta(\text{angle})$	$d=r\theta$
속	도		$V=\frac{d}{t}$	$\omega=\frac{\theta}{t}$	$V=r\omega$
가	속	도	$a=\frac{V}{t}$	$\alpha=\frac{\omega}{t}$	$a_t=r\alpha$ $a_r=\frac{V^2}{r}=r\omega^2$
관	성	량	$m(\text{mass})$	$I(\text{moment of inertia})$	$I=mr^2$
운 동 변 화 의 원 인			$F(\text{force})$	$T(\text{torque})$	$T=Fr$
운 동 동 량			$M=mV$	$L=I\omega$	
뉴 톤 의 제 2 법 칙			$F=ma$	$T=I\alpha$	
충 격 방 정 식			$Ft=M_f-M_o$	$Tt=L_f-L_o$	

III. 신체분절의 역학 작용

1) 단일 신체분절의 운동

<그림 28>은 하나의 신체분절이 운동할 때 미치는 힘들의 방향 표시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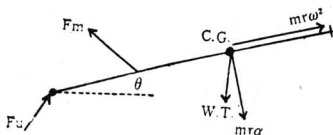


그림 28 단일 신체분절의 운동작용

여기서 W.T.는 신체분절의 무게, $mr\omega^2$ 는 회전운동에 있어서 관절축으로부터 분절의 중심에 평행하게 밖으로 끌어당기는 비회전력의 관성력 $mr\alpha$ 는 회전운동에 있어서 신체분절의 중심에 수직으로 끌어당기는 회전의 관성력, F_m 은 분절에 부착되어 작용하는 근의 수축력, F_u 는 관절에 연결되어 있는 분절에 의해서 미치는 힘이다.

여기서 이 분절운동을 분석하는에는 매우 복잡하다. 왜냐하면 근들의 수축범위, 근들의 수, 근들의 관절 중심으로부터 부착점까지의 거리들

을 알기 어렵기 때문이다. 그렇지만, 관절 중심으로부터 근들의 합력점까지의 거리에 모든 근력의 합과 곱한 값은 내력과 외력에 의해서 구해진 힘의 능률과 같다는 것은 분석하는데 가치가 있다. ⁴⁹⁾

$$\begin{aligned} \text{즉 } T &= \omega t(\cos\theta)r + mr\alpha \times r + mr\omega^2 \times 0 \\ \text{또는 } T - \omega t(\cos\theta)r - mr\alpha \times r &= 0 \end{aligned}$$

2) 달리기의 대퇴와 하퇴의 운동

달리는 속도는 스트라이드(Stride)의 길이와 피치(pitch)에 의해서 결정된다.

스트라이트와 피치의 비는 레이스 국민에 의해서 또 경기자에 따라서 다르지만 이 두가지 요인은 항상 존재하고 있다. 그래서, 주도 주자의 체형, 형태, 근력, 유연성 및 조정력등에 따라 정확하게 합치되고 있을 때에만 달리의 효율은 최대가 된다.

다리 움직임의 완전한 1주기는 2보의 스트라이드를 나타낸다. 이 주기는 발이 지면에서 떨어져 다리가 허프(hip)에서 흔들려 나오는 회복의 국민과 발이 지면에 접하는 순간에 킥(Kick)의 국민으로 나누어진다.

여기서 회복의 국민을 생각해 보면, 발끝이 지면에서 떨어져 다음의 킥으로 이동할 때까지 다리는 허프·무릎·발목의 관절이 굽혀질 때 가속한다. 이것은 고관절을 축으로 하는 대퇴의 각운동 슬관절을 축으로 하는 하퇴의 각운동의

일련의 동작이다.

따라서 달리기에서 있어서 대퇴와 하퇴의 각운동의 동작을 역학적으로 분석하려면 여러가지 역학적 요인이 다르지만 여기서는 “각운동량 = 관성능률 × 각속도”의 관계식에 의해서 분석해 본다.

달리는 다리의 동작을 역학적으로 분석하려면 먼저 관성능률을 생각하여야 한다.

강체의 무게 중심(G)을 통하는 축의 둘레의 관성능률을 I_G , 이것에 평행한 임의의 점 P 를 통하는 축의 둘레의 능률을 I 로 하면, $I = I_G + K^2 M$ 이다.⁵⁰⁾ 여기서 M 은 강체의 질량, K 는 GP 간의 거리이다.

그리고 다리를 하나의 <그림 29>과 같이 원기둥으로 생각할 때, 원기둥의 치수가 같고, 전체가 동질일 때 그질량이 M 라면 무게중심(G)은 원기둥 중심선의 중앙에 있게된다. 이 무게 중심 G 를 지나고 원기둥에 수직인 축 N 을 회전축으로 할 경우의 관성능률 I 는 $I = M(\frac{r^2}{4} + \frac{l^2}{21})$ 로 나타낸다.⁵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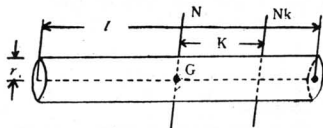


그림 29 원기둥의 관성능률

따라서 원기둥에서, 회전축을 K 만큼 평행 이동한 축을 N_K 라고 하면, 이 때의 관성능률 I_K 는 앞식 $I = I_G + K^2 M$ 로부터 $I_K = M(\frac{r^2}{4} + \frac{l^2}{12}) + K^2 M = M(\frac{r^2}{4} + \frac{l^2}{12} + K^2)$ 이 된다.

그런데 다리에서 r^2 은 l^2 에 비하여 매우 작으므로 $r \approx 0$ 로 생각해도 큰 영향은 없게 된다. 그러므로 $I_K = M(\frac{l^2}{12} + K^2)$ 으로 할 수 있다.

<그림 30>의 (a)는 O 를 회전축으로 할 때 대퇴의 관성능률은 $M \left\{ (\frac{l^2}{12} + \frac{l^2}{2})^2 \right\} = \frac{1}{3} M l^2$ 이며, 하퇴의 관성능률은 $M \left\{ (\frac{l^2}{12} + \frac{3}{2} l^2)^2 \right\} = \frac{7}{3} M l^2$ 이 된다. 따라서 곧게 편 다리의 O 를 축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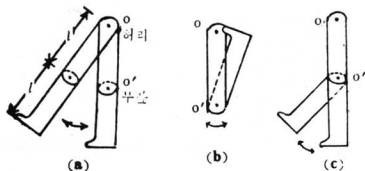


그림 30 다리의 관성능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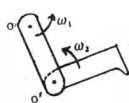
로 한 관성능률은 이 두개를 합한 것과 같게 된다. 즉 $M l^2 (\frac{1}{3} + \frac{7}{3}) = \frac{8}{3} M l^2$ 이 된다. (b)와 같이 대퇴와 하퇴가 겹치게 되면, 대퇴의 관성능률의 2배와 같으므로 $\frac{2}{3} M l^2$ 으로 된다. 따라서 O 를 중심으로 한 같은 다리의 관성능률에 있어서는 굽혔을 때가 뻗었을 때보다 작고 그 차는 $(\frac{8}{3} - \frac{2}{3}) M l^2 = 2 M l^2$ 이므로 그 차이가 매우 큰 것을 알 수가 있다.

다음으로 무릎 관절 O' 를 회전축으로 하는 하퇴부의 관성능률은 $\frac{1}{3} M l^2$ 이므로 고관절 O 를 회전축으로 하퇴부를 뻗었을 때의 다리의 관성능률 $\frac{8}{3} M l^2$ 와 무릎관절 O' 를 회전축으로 하는 하퇴부의 관성능률 $\frac{1}{3} M l^2$ 와의 비는 8 : 1의 비를 나타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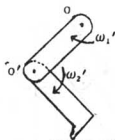
그러면 달릴때의 동작을 분석해 보면.

[동작 1] 뒤의 발이 지면에서 떨어짐과 동시에 무릎을 굽히 굽혔을 때에 일어나는 현상을 살펴보자.

이제까지 펴고있던 다리가 각속도 ω_1 으로 뒤로 회전할 때의 자운동량 L_1 은 $L_1 = \frac{8}{3} M l^2 \omega_1$ 이 된다. 다음에 하퇴부를 굽힐 때의 각속도가 ω_2 일 때의 자운동량 L_2 는 $L_2 = \frac{1}{3} M l^2 \omega_2$ 이다. <그림 31>의 동작 1에서 O' 를 중심속으로 하는 하퇴의 자운동량 L_2 는 L_1 에 대해서 반작용하게 되므로 $-L_2$ 가 되고 그 종합효과 L 은 $L = L_1 - L_2 = \frac{M l^2}{3} (8\omega_1 - \omega_2)$ 가 된다. 따라서, ω_2 가 ω_1 의 8배가 되면 L 은 0이 되므로 다리를 뒤로 회전할 때 생기게 되는 전진력을 제동하는 관성능률이 제거되어서 전진력을 크게 할 수 있다는 결과가 될 것이다.



(동작 1 지면에서 떨어진 직후)



(동작 2 굽힌다리를 앞으로 옮김)

그림 31 다리의 동작

[동작 2] 굽힌 다리가 앞으로 옮겨질 때는 상당히 큰 각속도 ω_1' 에 의해 큰 관성능률이 작용하나, 하퇴의 각속도 ω_2' 의 방향이 ω_1' 와는 반대인 까닭에 하퇴를 재빨리 펴 줌으로써 ω_2' 를 조절하면 ω_1' 가 없는 것처럼 할 수 있다.

이렇게 보면 뒤쪽 다리는 볼기에 닿을 정도로 바짝 굽히는 편이 유리하다 할 것이고 무릎을 앞으로 올릴 때 대퇴가 잘 벌어지게끔 강하게 굽힌 무릎관절을 재빨리 펴면 허벅지다리를 올리는 동작은 이 반작용으로 인하여 오히려 차는 동작으로 옮겨지게 되는 것을 알 수 있다.

VI. 결 론

인간생활은 신체활동을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장병들의 일상생활에 있어서도 신체 활동을 떠나서 생각할 수는 없다.

이러한 신체활동에 있어서 인간의 에너지를 경제적으로 쓰기도 신체기능을 충분히 발휘하게 될 때 아름다운 동작이 되며 효율적인 운동이 될 것이다.

본고에서는 신체운동기관을 일부로서 뼈, 근육, 관절의 각 운동기관을 지배하고 있는 물리적 요인들을 분석하였고, 이 요인들이 실제 운동기관에 역학적으로 어떻게 작용하는가를 살펴 보았다.

첫째, 골격계의 기능중 인간운동과 가장 관계가 깊은 것은 기계작용이다. 기계는 에너지를 유용한 형태로 변화시키는 기능 장치로 지레·윤축·도르레 등의 간단한 기계들의 조합으로부터 복잡한 기계를 이루고 있다. 이러한 기계를 이 인체의 골격계에서도 작용하고 있다.

둘째, 기계작용에 원동력이 되는 것은 힘이다. 힘에는 힘의 크기, 힘의 방향, 힘의 작용점의 특성이 있으며, 힘의 방향성분은 기하학적 방법으로 구할 수 있다. 그리고 회전하는 물체의 힘의 대소는 힘의 능률로 나타낸다.

근은 기계작용의 원동력이 되는 힘과 같이 인체의 기계에 힘을 제공한다. 기계나 인체가 하는 일은 똑같이 역학적 원리가 이용되며 단위도 똑같이 사용된다.

세째, 관절은 둘 또는 그 이상의 뼈들을 근, 인대에 의해 연결 조합되었으며, 여러 형태로 신체운동을 행하기 때문에 인간이 운동을 행하는 데 영향을 주는 역학적 요소로 운동학(kinematics)과 운동역학(kinetics)에 관한 기본 원리를 이해하여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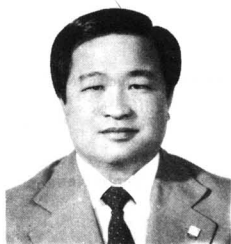
이와같이 뼈, 근육, 관절로 구성된 인체의 운동기구는 역학적 기계체통을 갖고있다. 그러므로 이들은 다른 어떤 기계에서와 같이 역학적 법칙에 지배를 받아 작용한다.

따라서 인간의 신체운동에서 역학적 원리가 어떻게 작용되는가를 이해하므로써 보다 훌륭한 신체활동의 능률과 미를 높일 수 있다.

參考文獻

1. 宮畑虎彦・高木公三郎・徳本水購: 身體運動學, 學藝出版社, 京都, 1975, p.3, ¹⁾ p.259 ²²⁾
2. 中村隆一・齋藤宏: 基礎運動學, 醫齒藥出版株式會社, 東京 1976 p.4 ³⁾
3. 宮畑虎彦의 6人: 身體運動의 科學, 學藝出版社, 京都, 1968, p.56, ⁵⁾ pp.17~18⁶⁾, pp.102~103¹⁶⁾, p.103¹⁷⁾¹⁸⁾, p.104¹⁹⁾²⁰⁾, p.105²¹⁾, p.96²⁵⁾, p.137⁴¹⁾,
4. 澁川侃二: 運動力學, 大修館書店, 東京, 1973, p.37²⁴⁾, p.46⁴⁵⁾,
5. 宮畑虎彦・高木公三郎・小林一敏: スポーツとキネシオロジー, 大修館書店, 東京 1974, p.123²⁸⁾, p.135³⁰⁾, p.188⁵⁰⁾ p.209⁵¹⁾
6. 金原勇・澁川侃二・古藤高良 共譯: 陸上競技의 力學, (Geoffrey Dyson, The Mechanics of Athletics) 大修館書店, 東京, 1972, p.119. ⁵⁰⁾
7. Metheny, Fleanor; Body Dynamics, McGraw-

동 아 체 육 관



관장 김 중 영

대한태수도협회시 (63~65년) 날선하고 단단한 체격으로 선수생활을 했던 김 선수의 모습은 유도나 역도를 한사람 처럼보였다.

1957년도에 동아체육관에서 태권도를 시작하여 30여년간 태권도와 생활한 그, 20여년간 체육관을 운영하며, 동아대체육관의 이름을 사 용하여왔다.

김 관장은 66년 출판업에 투신, 현재 오성(五星)출판사를 경영하며, 출판사 건물에 40여평의 체육관을 개설 후진양성을 겸하고 있다.

김 관장은 태권도 선수의 육성보다는 건강과 정신측면에서 체육관을 구 역하며, 충효사상을 중심으로 지(知), 체(體), 용(勇)의 삼육을 기 르는데 중점을 두며, 늘 너그러운 사랑으로 관원들이 내 아들 딸처럼 생각된다고 말한다.

그는 말일성도교회의 장로서 사회복지를 위한 신앙생활도 철저히 하며, 틈틈이 시간을 내어 국내각 중경기의 배심(1급심판원)으로 활



동하며 서울시협발족당시 이사로 참여하였고, 국민학교연맹 경기분과 위원장을 역임하였고 현재 국기원 새생활분과위원장으로 참여하고 있다.

모든 체육관을 늘 아끼는 후배들에게 인계하고 새롭게 시작한 것만 도 네차레나 되며, 20년간 체육관

운영에 김 관장의 지도를 받으며 도복을 입은 숫자는 3,000여명이 넘 으며, 유품자 배출도 1,000여명에 달한다.

체육관앞의 영중 국민학교에 태권도 시범단을 만들어 84년 9월 운동회때 태권도 시범을 보여 좋은 반응을 받았으며 관원 거의가 영중국



(영중국민학교 운동회: 태권도 시범)

교생들로 모범생들이라고 말한다.

영중 국민학교 5학년 재학중인 김 재현군은 1981년 9월에 2품 심사에서 품세상을 수상하였고, 1학년부터 지금까지 반장을 하게 된것도 태권도 수련의 덕이라고 말한다.

본인의 건물에서 사업과 태권도장을 같이 운영하는 김 관장,

우리 모든 태권도 사범이 태권도 수련은 후배양성과 취미를 살리는 부업으로 각박하지않게 운영을 하고 있다

인사(人師)로서의 모범을 보일 그날이 오기까지 모든 사범들의 정성어린 노고가 필요하며, 밝고 어유 있는 태권도인의 모습을 그려보며 발길을 돌렸다. ④

김관장은

태권도 선수의 육성보다는

건강과 정신측면에서 체육관을 운영하며,

충효사상을 중심으로

지(知), 체(體), 용(勇)의 삼육을

기르는데 중점을 두고있다.



프레 월드 게임 태권도 대회

Pre-World Games Taekwondo Championship



태권도는 2천년전 한국에서 시작되었지만 이제 태권도를 세계의 으뜸가는 스포츠로 키우는 일은 우리 모든 태권도인에게 부과된 공동책임이자 의무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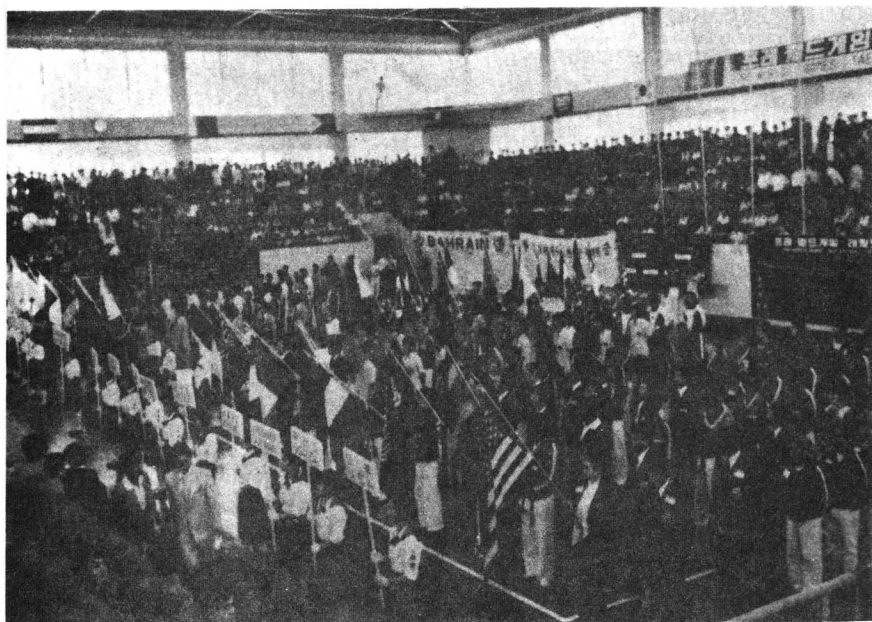
(김운용대회장의 개회사에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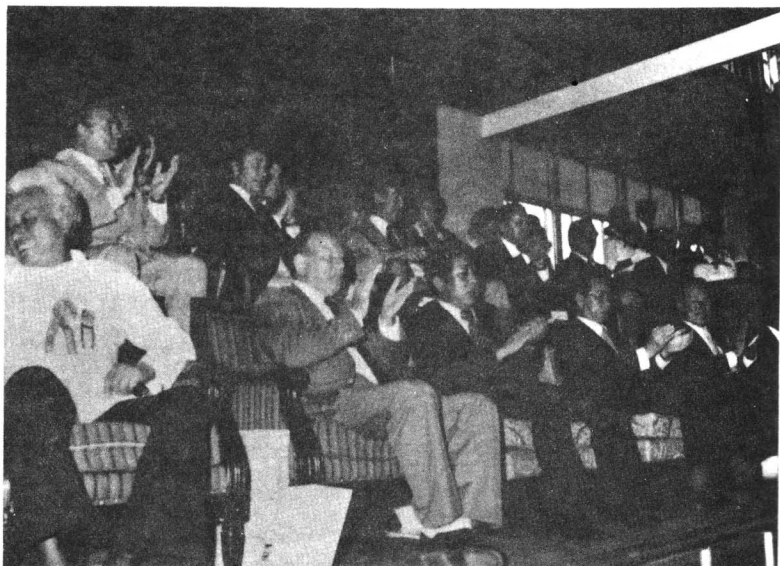
"Taekwondo was started in Korea 2000 years ago, it is now the duties and privileges of all Taekwondo students in the world to join in our common efforts to make it a great world sport."

(....from the Opening Address by President Un Yong KIM)

↓ 프레 월드게임 태권도대회 개막식 전경

The Opening Ceremony with 19 participating national team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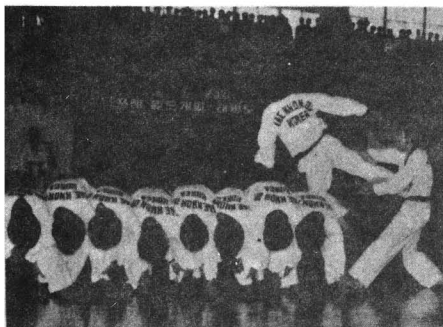
각국의 선수단 입장을 격려하는 귀빈석(앞줄 우로부터
주한 외교사절단장 티로나 대사, 국제탁구연맹 에반스
회장, 김운용대회장, 박찬현 문교부장관, 구자춘 서울
특별시장)

Distinguished guests present at the Opening
Ceremony (Front row, from right, Dean of
Diplomatic Corps, Ambassador Tirona, President
of I.T.T.F. Roy Evans, President of W.T.F. Un
Yong KIM, Minister of Education Chan Hyun
PAK, Mayor of Seoul City Ja Choon KOO.)

태권도 연무 시범 장면 Taekwondo demonstration

성인부의 장애물 격파

A scene of Taekwondo demonstration by adults.



소년부의 장애물 넘어 뒤돌아차기

Taekwondo demonstration by children





최규하 국무총리와 상담하는 에반스가 귀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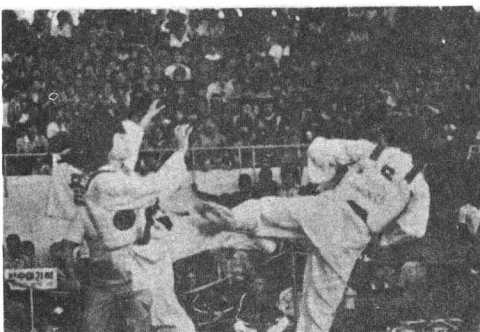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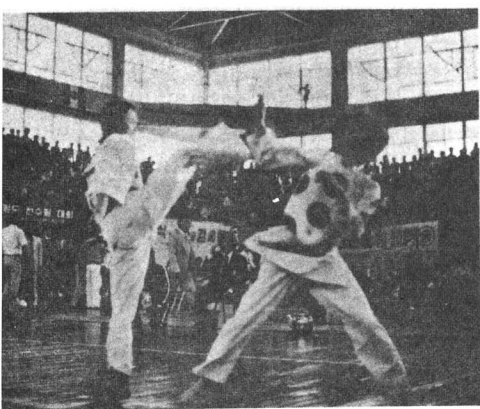
President of I.T.T.F. Roy Evans, Secretary-General of I.T.T.F. Anthony Brooks, W.T.F. vice-president Roland DeMarco, Minister of Education Chan Hyun PAK, President W.T.F. Un Yong KIM, paid a courtesy call on Prime Minister Kyu-Hah CHOI.

프레쉴드게임 태권도 대회에 참가한 국제탁구연맹의 에반스회장은 김윤용총재의 안내로 문교부 장관을 예방하고 있다.

President of I.T.T.F. Roy Evans(left) visited the Minister of Education Chan Hyun PAK (right) at Center is Un Yong KIM.



경기스냅 Competition Scene





시상식에서 참가국 대표자에게 참가패를 수여하는 광경
Closing Ceremony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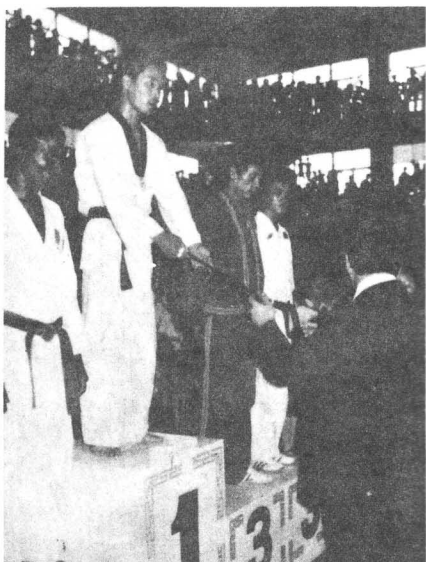
종합우승을 차지한 Dr. Un Yong KIM, President of 한국의 이용우 단장 W.T.F., awards championship 이 김운용대회장의 certificate to Yong Woo Lee, head 로 부터 상장을 받 of Korean team during the Closing 고 있다. Ceremony

선수대표 선서를 하고 있는 김철환 선수
Oath by contestants' representative: Chul Hwan Kim of Korea.





미들급 입상자들의 시상광경
Awarding of medals to Middle-
weight division winners.



반텀급 입상자들의 시상광경
Awarding of medals to Bantam-
weight division winners.

여자부 핀급 입상자들의 시상광경
Awarding of medals to Fin-weight



여자부 미들급 입상자들의 시상광경
Awarding of medals to Middle-
weight division winners (Woman).





김윤용총재를 예방한 국제 대학스포츠연맹 회장 네비올로 박사 부처

President Un Yong KIM receives a courtesy call from Dr. and Mrs. Nebiolo, President of Int'l Federation of University Sport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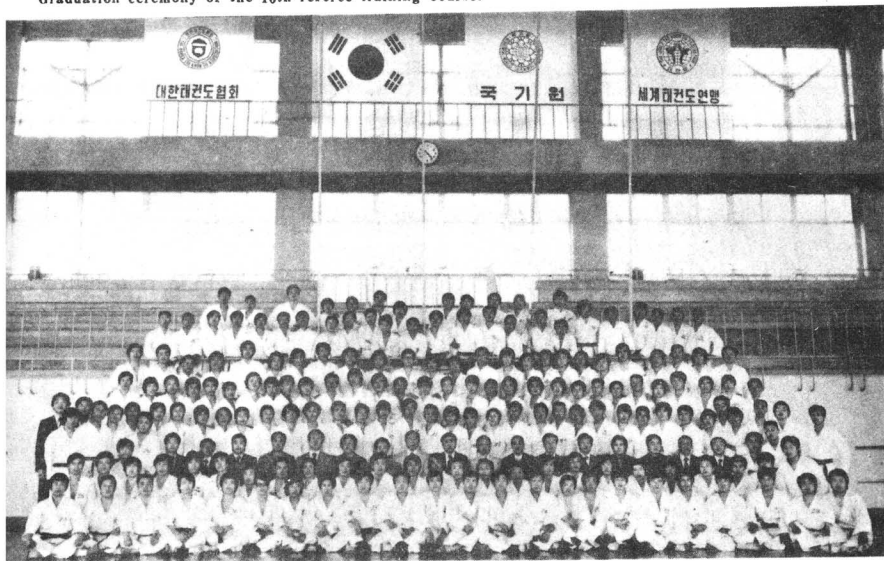
프레쉴드게임 태권도대회 파견 한국대표 선수 여자부 선발대회에서 영광의 우승을 차지한 입상자들.

Korean women's team to the Pre-World Games Taekwondo Championship.



제16기 3급 심판강습회 수료기념 촬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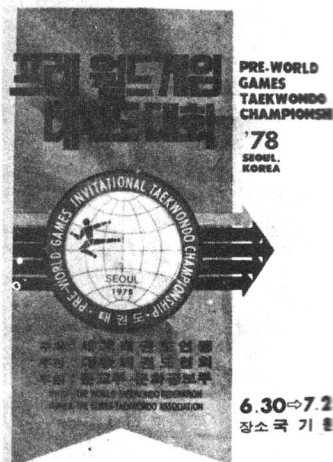
Graduation ceremony of the 16th referee training course.





프레월드게임 태권도대회 파견 한국 남녀대표선수 결단식을 마치고

The Korean National Team to the Pre-World Games Taekwondo Invitational Championship



프레 월드게임 태권도 대회 포스터
Poster of Pre-World Games Taekwondo Championship.

제23기 지도자교육 수료자 기념촬영

Graduation ceremony of the 23rd Instructors' Training Course.



第23期指導者教育修了記念 1978.3.11